

원로 언론인 '힘있는 역할' 다짐

大韓言論人會 제19대 金銀九회장체제 출범



김은구 회장.

정기총회서 회장선거

개표결과	김은구	235표
	이병대	184표
	무효	4표

대한언론인회는 1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 28차 정기총회에서 김은구 상담역을 제 1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우 423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김은구 후보 235표, 이병대 후보 184표, 무효 4표로 김은구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팎을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흥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허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퇴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정운중 상임이사의 성원보고와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2013년도 업무보고, 송호빈 감사의 감사보고, 2013년도 결산보고, 2014년도 예산(새 집행부에 위임)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400명이 넘는 회우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은 대한언론인회 역사상 초유의 일로 회원들의 대한언론인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유례없이 높았음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이날 선거는 신우식 고문(전 서울신문 사장·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양 후보의 소견발표를 들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섭 회장등 양측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임회하에



400명이 넘는 회우가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한 정기총회장.



회장선거 개표결과 발표된 흥원기 회장과 두 후보가 승복과 합심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병대 후보, 흥원기 회장, 김은구 당선자.

투표와 개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흥원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은구 회장은 총회에서 김성배 전 KBS 보도제작국장, 정기정 전 MBC 사를 감사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 선출은 김은구 신임회장에게 일임하자

는 동의를 있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원명단 2면 참조)

김은구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취임사 별항 참조)에서 이미 약속드린 ‘약속 3

장’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퇴직 언론인 유일 최대단체 위상에 걸맞은 대한언론인회의 새 지평을 열 것이며 대한언론인회를 일신하여 힘이 있고 일이 있고 정이 넘치는 수평소통의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구 신임회장은 1938년 황해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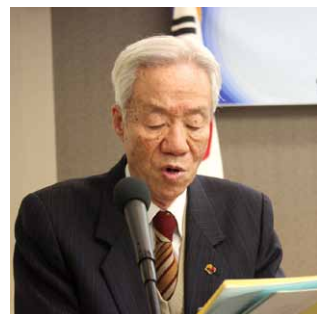
주 출신으로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에서 근무했으며 1973년 KBS로 옮겨 사회문화부장, 취재부국장, 대전방송국장, 기획조정실장, 뉴스센터 주간, 부산방송본부장, 기초실장, 경영본부장, KBS 아트비전사장, KBS이사 등을 역임했다. [4]



신우식 임시의장의 개표발표.



한영섭 선거관리 위원장.



송호빈 감사의 감사보고.



정운중 상임이사의 회무보고.

2·3면에 관련기사, 16·17면에 참석자 명단

회우단합 - 수평소통 기본정신 충실

大韓言論人會 제 19대 집행부 얼굴들

대한언론인회 제19대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새 집행부는 특히 회원의 단합과 수평소통을 위한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회장단은 각 언론사 고위직을 역임했고 전 현직 사우회장 출신들이고 이사진은 각 직능별로 진용을 갖추었다.

한편 김은구 회장은 앞으로 임원진을 회원 600여명 시대에 걸맞게 차기 이사회와 총회 인준절차를 마치는 대로 대폭 늘리고 현 상담역의 기능을 명실 겸전의 자문기구로 격상시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안과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기능적으로 개편, 운영의 묘를 기하기로 했다. (괄호안은 직책은 전직)

<고문>

신우식(대한언론인회 회장)
제재형(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창화(대한언론인회 회장)

<명예회장>

홍원기(대한언론인회 회장)

<감사>

김성배(KBS 보도제작국장)
정기정(MBC 감사)

<부회장>

김문진(서울신문 편집국장 전무 현 사우회장)
김충한(한국일보 도쿄지사장, 전 사우회장)
김태선(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사, 현 사우회장)
이형균(경향신문 편집국장, 한국프레스센터 전무, 사우회장)
인보길(조선일보 편집국장, 상무, 현 사우회장)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정운중(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사>

강한필(경향신문 편집국장, 불교방송사장)
고재혁(한국경제 사회부장, 환경사우회 사무국장)
김경태(서울경제 부국장)
김영호(한국언론인금고 상임이사)
박용배(한국일보 상무)
박우정(청주문화방송 사장)
이병훈(조선일보 부국장,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이상호(문화일보 편집위원)
정두진(CBS 보도국장, 전무)
정형수(동아일보 동경특과원)
최귀조(내외경제 편집국장 대리)
최신호(서울신문 심의위원 실장)
한중광(KBS 파리총국장, KBS 인터넷사장)

<상담역>

김인규(KBS 사장)
박기병(강원민방 사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송호빈(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회장)
윤기병(중앙일보 기자, 정부장관실 제1차관)
윤익한(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전무)
이도형(조선일보 논설위원,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사장)
이성준(한국일보 편집국장, 부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태영(중앙일보 편집국 섹션국장)
한기호(미디어 KN회장)
함정훈(국민일보 편집국장, 제작이사)

김은구 회장 약력

▲조선일보 기자, 서울신문 사회부차장, 경향신문 사회부장
▲한국방송공사(KBS) 사회문화부장, 뉴스센터 주간(보도국장), 부산방송본부장, 방송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인사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본부장
▲KBS 아트비전 사장
▲KBS이사회 이사
▲KBS사우회 회장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훈 포장>
새마을 훈장 노력장, 체육포장

고문



신우식 고문



제재형 고문



조창화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감사

김성배 감사(오른쪽)
정기정 감사(왼쪽)



부회장

(가나다순)



김문진 부회장



김충한 부회장



김태선 부회장



이형균 부회장



인보길 부회장

이사

(가나다순)



정운중 이사



강한필 이사



고재혁 이사



김경태 이사



김영호 이사



박용배 이사



박우정 이사



이병훈 이사



이상호 이사



정두진 이사



정형수 이사



최귀조 이사



최신호 이사



한중광 이사

상담역

(가나다순)



김인규 상담역



박기병 상담역



송호빈 상담역



윤기병 상담역



윤익한 상담역



이도형 상담역



이성준 상담역



이태영 상담역



한기호 상담역



함정훈 상담역

'친목' 너머 '할일' 찾아 함께 나갑시다

“축하하오” 저쪽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이쪽이 답했습니다.
양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락이 갈린 뒤
최후의 승자는 大韓言論人會였습니다.

大韓言論人會회장 선거가 치러진 날,
프레스센터는 모처럼 이름대로 ‘프레
스’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날 총회
는 신문 방송사의 사장 출신 등 원로들
과 언론 출신 장, 차관 그리고 국회의
원을 지내신 분 등 423명의 회우가 참
석, 우리 언론인회 창립 이래 최대 규
모 집회였습니다. 이 최대 ‘인파’ 에
담긴 뜻은 무엇이였을까요.

개표가 끝나고 모두 떠난 빈자리에
회원님들의 기대와 당부의 여운이 수북
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와
당부의 무게를 가늠하여 자꾸만 무거워
지는 어깨를 추스렸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우리언론인회가 친목
너머 그 ‘무엇’ 을 향해 ‘뛰어라’ 는
당부 아니었겠습니까. 소망의 갈등 같

은 명령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작가 코맥
매카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No
country for old
men) 총회 그날 저
는 이런 생각을 했
습니다. “여기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
(Here, the country for old men)·노
인의 나라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
라 만드느냐, 손 놓고 있느냐의 문제입
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과제입니다. 나
이 든 사람들의 ‘自勵’를 ‘自助’ 로 바
꾸자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후보 때
내건 ‘김은구 약속 3장’ 실천을 위해
‘모두 함께’ 를 제창합니다. 6백여 회

김은구 회장 취임사



원들의 묻혀서 쉬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
게 캐어 낼 것인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
담을 현실화 시키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나라는
“없다” 를 “여기 있
다”로 패러다임을 바꿔 힘 있는 大韓
言論人會로 거듭나자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시 김은구 약속 3장을 되새겨
보며 저의 다짐을 새롭게 하려합니다.

약속 3장은 1. 회원확충 2. 올곧은 목
소리 높이기 3. 일거리 많이 만들기입
니다.

실천 첫 걸음으로 한국 최초의 ‘퇴직
언론인 센서스’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이 취지에
공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유관 단체의 적극적 협력을 얻
어내 ‘최대 최강의 大韓言論人會’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우 여러분과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 구조의 개편과 확
대입니다. 우리 조직의 규모나 모습이
창립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정관상의 임원수와 조직 구
조 등이 하나도 달라지게 없습니다. 오
늘의 현실에 맞게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임기응
변의 묘수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큰 업적을 남기신 홍원기 회장님과
임원, 분과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함
께 갑시다. ㉞

언론산업 중흥의 길 계속 모색하길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대한언론인
회 회장직을 수행한지 어느새 임기 2년
을 연임하여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
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 그 짐을 내려놓게
되니 회우님들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
래도 큰 허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
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회우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
다. 이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한언론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역점을 둔 일은 회우님들의 풍
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와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회원 중 40여명을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로 추천해
서 전국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회우님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6·25 참전
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을 중심으로 ‘우
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를 주제로
한 참전기를 발행했고 고인이 되신 원
로 언론인들의 행적을 다룬 ‘한국언론
인물사화’와 70세 이상 회우들이 쓰신

‘실록 -- 언론인의
길’ 1·2·3 권을 발
행해서 우리 언론사
에 귀중한 자료로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익
과 언론’ ‘위기의
한국진단’ 등 시사
성 있는 주제로 매
년 2회씩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역사탐방과 명화감상의 기회를
넓힌 것 역시 흐뭇한 보람입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
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한언론인회에서 발행하는 ‘대한언
론’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자유언론수
호와 국가이익을 앞세우는 공정언론의
진면목을 보여 왔습니다. 더구나 배포
범위를 확 바꾸어 언론사와 청와대, 정
부청사, 국회, 정당, 대학교수 등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하여 여론
을 주도하는 독자 폭을 넓히려고 노력
했습니다.

홍원기 회장 퇴임사



사무실 분위기도
회원 저술문고 설치
등 좀 더 아카데미
한 공간으로 바꾸었
습니다. 그래서 회
원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는 소
통의 광장으로 일신
하고자 사비를 들여
책장, 소파, TV, 대
형시계 설치 등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
꾸어 봤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을 더
넓힐 수 없었던 아쉬움은 남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리 언론계는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
는 4년 동안 유례없는 격변의 파도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질풍노도
의 시기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
겠습니다. 신문 산업은 ‘올드미디어’라
는 별칭이 말해 주듯 주류 언론의 위치
에서 밀려나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
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계로서도 종합편성 채널 4개가
허가 되면서 기존 공중파 3사와 더불어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
편입니다. 신문 산업이 급격히 사양 산
업으로 전락한 것은 시대조류 탓뿐 아
니라 신문 스스로 시장변화에 둔감했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 가
장 큰 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지적했듯이 대한언
론인회는 각 일간신문사와 방송, 통신
사 출신 원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높은 식견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
으로 언론 산업 중흥의 길이 무엇인지
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이제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
래도 회장직을 물러나는 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볍고 기쁩니
다. 새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고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회우님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아끼없
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우 여러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㉞

19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열어

대한언론인회 19대회장을 선출하기위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11
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영섭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선
거관리위원회는 김호기 송효빈 김성배
안평선 박응칠 이종기위원장등 위원 전원
이 참석, 선거를 공정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운중 사무총장의 선거일정에 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이번 선거를 공정
정대하게 치를 것을 다짐했다. 한편 회
비 미납 회원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개
시 직전까지 납부하면 투표권을 부여한
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㉞



정부 정책 홍보 언론대책이 없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의 정책홍보 능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대응방식이 어설피고 서툴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청와대의 홍보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 홍보를 주도하며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조직이 역으로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면서 홍보 조직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권 초반부터 흔들렸던 청와대의 정책홍보 기능은 지난 해 말에 있었던 철도파업 전후로 무기력증이 극치에 달했다.

갈등시작전 선제적 대응필요

사회적 갈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에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책홍보의 존재 목적이다.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습책을 제 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철도 파업 때의 청와대 정책 홍보는 실망스러웠다.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된 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애꿎게도 일반 시민들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영문도 모른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민영화 여부를 놓고 노조 및 야당측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낯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처지에 놓였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철도와 같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먼저 알렸어야 한다. 홍보를 통하여 국민을 설득 시켜야만 공감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정부안인 자회사 혹은 민영화 형태의 운영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했어야 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의 제시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높여 준다. 지난 파업 때의 정보 홍보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 정책의 집행 의지 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PR- 선전과는 다른 개념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는 정부정책의 홍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국정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정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PR나 선전과 같은 개념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PR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미디어 이벤트 창출이 주목적으로서 ‘스핀 닥터스’(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자들이라는 뜻)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선전은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이념을 전파하는 술수이다. 반면에 홍

특별기고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

철도노조 파업때

무기력증 드러내

생각-철학 공유

문제해심 파악하는

경륜있는 대변인 필요

언론과 상시적 접촉

국민에 직접 알리는

대통령의지 중요

보는 지도자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노선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런 정책 홍보는 정부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 사안은 청와대가 직접 대변인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을 전한다.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최대 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한다. 모든 언론의 눈과 귀는 청와대에 집중되고 대통령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관행이다.

사회 일부 계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도 청와대 정책 홍보의 불신에 기인한다. 철도파업 당시 SNS등으로 많은 괴담이 유포되고 잘못된 정보나 의견이 마치 사실인양 퍼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해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미적거리면서 “적당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 고수만을 강조했다. 내 원칙이 옳다면 그것이 옳은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우선 구했어야 했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뒤 그것이 지닌 한계점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어야 한다.

‘공익성’과 ‘공영성’을 앞세우는 공기업의 개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공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민영화’가 독점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이라서 일반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키는 나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한 공기업의 개혁은 험난하다.

대통령의 적극적인지 중요

청와대 정책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을 앉히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륜을 지닌 인물을 앉혀야 한다. 단순히 내용만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여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현재의 홍보수석과 대변인제로 되어있는 상하 이중구조 보다는 수석이 직접 대변인을 겸하는 단일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를 향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언론과의 상시적 만남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신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쌍방향적인 소통에 기반한 홍보야말로 국민들의 진정한 공감을 유도할 것이다. [E]

대한언론인회 제140차 이사회 열어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28차 정기총회에 앞서 제 140차 이사회를 열고 2013년도 결산 및 회무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다음은 2013년도 회무보고 내용이다.

〈종합보고〉

대한언론인회 1년을 회고하면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 찬 한해였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은 대한언론인회의 오랜 전통과 높은 대외 신인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적

극적인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업을 손꼽는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개최 하고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3집을 속간하고 본회가 주관한 문화역사 탐방과 야외수련 말고도 언론진흥재단 행사(문화역사 탐방, 영화 감상, 송년음악회 등)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가 할 만한 업무 추진 성과였다.

또한 6·25 참전언론인회의 역동적인 운영에 힘입어 대한언론인회의 정체성과 위상이 한층 제고 되었다는 사실은 원로언론인들의 정적인 한계를 초월한

생동감으로 기록될만하다. 또한 다부동 전적지 탐방, 인천상륙작전 재연, 성남 비행장 국군의 날 행사 참가에 6·25 참전언론인과 본회 임원진이 다수 초청된 것은 대한언론인회의 높아진 위상을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을 대표집필자로 하여 발간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출판은 6·25 한국전쟁을 재조명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사를 넘나든 생생한 참전 실화들은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초월하여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와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원로 언론인들의 애국심 넘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두 차례에 걸친 대토론회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일깨운 것은

원로 언론인들의 격조 높은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매월 1일자로 발행되는 ‘대한언론’은 권위 있는 정론지로서 열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사단법인체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광고 수주로 제작비를 커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세법을 존중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결과다.

대한언론인회는 이밖에도 통상적인 회원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사무실 분위기 쇄신으로 모든 회원들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E]

제대로 된 ‘중립신문’이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없다. 뼈라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신문 치고 중립을 표방하지 않는 신문이 없고 우리나라 신문 치고 중립인 신문이 없다. 저마다 신문의 중립을 외치지만 아무도 중립에 대한 정견이 없고 저마다 자기가 중립이라 하여 중립의 중심이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신문다운 신문이 없는 까닭이다.

■ 태평로에서 ■



김성우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

무엇이 중립이나

중(中)은 최고의 미덕이다. 예부터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중용을 찬미했다. <중용>은 말한다. “중은 천하의大本이다.” 플라톤은 “양극단의 지나침을 피하는 중용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이 정상”이라고 했다. 주희(朱熹)는 <중용장구>에서 중을 이렇게 풀이한다. “중이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으며(不偏不倚), 지나치지도 않고 못 미치지도 않는 것(無過不及)이다.” 이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 것”이 신문의 중립이다. <중용>에서는 “중간에 서서 기울지 않으니 강하다 깨끗함이어”라고 중립불의(中立不倚)를 칭송하고, <서경>은 “기울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도는 탕탕하다.”고 무편무당(無偏無黨)을 고취시킨다. 이것이 신문에서 즐겨 말하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다. 불편부당이 중립이라지만 신문의 중립은 산술적 중간 지점에만 서는 것이 아니다. 한가운데는 중도일 뿐이다. 흔히 신문의 중립을 중도와 혼동하고 오해한다. 중도의 신문은 모든 당파와 등거리에 서서 어떤 당파에도 편들지 않는 무당파를 말한다. 이것이 얼핏 보기에 불편부당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중도는 무신념이요 무책임한 것이다. 중도는 공평할지는 몰라도 공정하지는 않다. 과중실정(過中失正)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중간을 지키면 오히려 공정을 잃게 된다.

중립은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다. 선과 악의 중간이 중용일 수 없다. 신문의 중립은 공정한 편에 서는 것이다. 옳으나 그르거나 기준이다. 문자 그대로 시시비비다.

중립은 가변적이다. 본래 중용은 그 기준이 요지부동인 것이 아니라 변통이 있는 것이다. 공자는 “군자의 중용은 시중(時中)”이라고 했다. ‘시중’은 때에 따라 알맞게 중용을 취한다는 뜻이다. <맹자>에서도 “중용을 지키는데 시의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융통성이 없으면 한 쪽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춘추필법의 중립 정신

신문들은 저마다 ‘춘추필법’을 사기(社旗)처럼 높이 내건다. 이 말은 보통 엄정한 비판 정신이란 뜻으로 쓰인다.

<춘추>는 공자가 노(魯) 나라 242년의 역사를 편찬한 연대기다. 이 <춘추>의 희공 28년 겨울 조에는 춘추 시대 제후의 하나인 진(晉)의 문공이 초(楚)를 격파하고 패자가 된 뒤 여러 제후들을 한 자리에 모은 회맹의 기사가 나온다. 이 때 문공은 천자인 주왕을 온(溫)땅으로 불러서는 제후들을 거느리고 배알한 뒤 천자에게 사냥을 하게 했다. 그런데 <춘추>에는 진문공이 불러서 천자가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단지 하양(河陽)에서 사냥을 했다고만 썼다. 그 까닭을 자공이 묻자 공자는 “신하의 신분으로 임금을 오라고 한 것은 후세의 교훈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제후가 천자를 부른 것은 불경이기 때문에 기피했다는 것이다.

<춘추>는 도처에서 이렇게 후세에 본이 되지 못할 대악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 <춘추>는 그 대의가 명분을 바르게 하고 포폄을 행하고 시비를 밝히는 것이었고 이 대의를 위해 서는 기사가 신축성이 있는 것이었다. <춘추>의 이러한 입장이 곧 ‘시중’이다. <춘추>는 이런 필법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요, 이 춘추필법의 정신이 곧 신문의 중립 정신이다.

왜 우리나라에는 중립 신문이 없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춘추필법이 붓대의 붓털처럼 갈래 갈래 찢겨져 있다. 저마다 춘추필법을 아전인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도 춘추필법이라 위장하여 악용한다. 극단으로 가면서도 자기로서는 자기 교의가 대의이니 춘추필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훼손된 춘추필법이 우리나라 신문의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립 신문이 없고 지금까지 중립 신문의 전통도 없다. 광복이 되면서 쏟아져 나온 우리나라 신문들은 해방 공간 동안 좌익과 우익의 결전장이었다. 중립은 회색 분자로 낙인 찍혀 좌·우 양측으로부터 매도당함으로써 중립 신문은 설 자리가 없었다. 6·25 전쟁의 종전 후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신문은 여당지나 야당지나로 갈렸다. 정부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는, 여당지도 야당지도 아닌 중립의 신문은 존립할 수 없었다. 신문은 비민주적 정권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정의였으므로 때로는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를 두둔하거나 야당을 나무라고 싶어도 여당지로 오인될까봐 용기를 내지 못했다. 민주화가 되고나니 여당지나 야당지나가 무의미해지면서 심심해진 신문이 이제는 보수나 진보나, 우파나 좌파나 대립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 중립지가 정착하지 못하는 까닭은 신문의 철저한 상업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신문의 권위는 오로지 독자 수에 달렸다. 그러니 신문마다 독자의 기호에 영합하는 대중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립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위 권위지도 없다. 권위지란 대중지에 대한 반대 개념이지만, 권위지가 곧 중립지다. 중립 없는 권위지는 없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신문은 처음부터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떤 당파에 속한 사람이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반대파의 신문을 계속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이 자기 당파의 강화에만 유용하다는 것은 선전의 명수이던 히틀러의 강변이랄 수도 있겠지만, 중립 신문이 독자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제기는 된다.

누구나 자기 사상이나 의견의 동조자에 호감이 가는 법이다. “사람은 대개 자기와 같은 의견이 아닌 사람은 양식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문 독자층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층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보다는 중립 신문이란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읽는 신문이다. 그런 권위와 신뢰를 확립하면 차츰 여론 주도층이 너도 나도 읽지 않을 수 없는 신문이 될 것이다.

왜 지금 중립 신문이나

지금 우리 사회는 중심이 없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한다.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요동은 제들마이어가 말하는 ‘중심의 상실’ 때문이다.

도처에서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대립, 진보와 보수의 극한적인 대결이다. 나팔마다 외쳐대지만 어느 것이 정론인지 가르쳐 주는 정직한 목소리가 없다. 깃발마다 펄럭이지만 어느 길이 정도인지 가늠해 주는 깨끗한 꽃대가 없다. 중앙선이 없는 줄다리기가 시합이요, 심판이 없는 격투기장이다. 지남철의 자기(磁氣)가 마비된 나라다. 방향을 잃은 국민들은 정방향을 알고 싶다. 헛갈리는 국민들은 정답을 알고 싶다.

“신문이 문제다.”

물을 데라고는 언론뿐인데 대답할 언론은 그 자체가 대립된 양극에 서서 저마다 바람질이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한결 같이 몰책임하고 몰지각한 언론을 분개한다. 언론은 사회 통합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앞장서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북을 동동 울리며 자기 진영을 독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중심이 될 표준 신문이 필요하다. 국론의 기준이 될 잣대의 신문이 절실하다. 일부 신문이 간혹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도 이미 편싸움이 되어 버린 신문의 주장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신뢰를 잃은 중립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 신문의 정도라고 해서 굳이 모든 신문이 다 중립일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립의 신문이 대망되는 것은 중립의 신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 당파를 대변하는 신문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다양한 의견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론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문의 모델이 되는 신문이다. 중립 신문이 그 모델의 신문이다. 모델이 있어야 당파지들의 편향성이 들킨다. 모델이 있으면 아무 신문이나 함부로 중립지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사칭하지 못한다.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독자들은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신문이 목마르다. 짓고 싶은 것은 짓고 싶은 대로 짓으라. 그러나 정직하게 새벽을 알리는 닭은 있어야 한다. 

좌파 · 우파

진보 · 보수

극한적 대립불식

무책임한 ‘中道’말고

춘추필법파른

국론 기준 될

‘표준 신문’ 나와야

각계각층 침투 ‘좌파가시’ 뽑아야 한다

북한은 현재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이 침몰하고 있는 65년 된 전함과 같다. 선장은 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고 자신의 고모부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보여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정쟁만 일삼고 이 틈새에 ‘새정치’란 구호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계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논리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소통부족보다 갈등조장이 문제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을 소통부족이라 한다. 그렇다면 시민·환경단체의 적극적 지원 하에 정권을 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사회적 갈등이 없었어야 하나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고 급기야 6년1개월이란 기간의 국정사업 중단까지 초래했다. 사회적 갈등을 소통부족이라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워싱턴DC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모른 채 지나간다. 선거철에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관심 밖으로 소통이란 것이 거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념문제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장 인터넷에 영향력이 큰 세력은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陰地와 陽地가 갈린다. 재기를 꿈꾸는 세력, 종북세력, 사회의 낙오자로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세력, 좌파성향의 시민·환경단체 등은 양지가 올 때를 고대하면서 격렬하게 투쟁한다. 이런 세력은 미국보다 훨씬 많으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미국 같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된다. TV뉴스에 매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온 국민은 이런 단편적인 보도를 보고 사회 전체를 판단하고 불안해하며 불만에 빠진다.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의 분신자살과 같은 불행한 문제가 좌파진영에서 재포장되어 미화되면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하고 포털이 받아 널리 퍼트린다. 이 과정에 북한이나 종북 성향의 사람들이 퍼 나르고 이를 청년들이 보면서 여론이 왜곡된다. 이런 일들은 노무현 정권부터 좌파성향의 중소언론매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여론 왜곡이나 선동이 만연하고 있다.

癌같이 침투하는 문화적 세뇌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계는 좌파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 정관계·교육·법조·언론계 등에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웰컴 투 동막골’ 같이 북한군을 미화하고 미군과 국군을 오히려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묘사하는 反美 영화나 ‘변호인’ 같이 명백한 사회주의 운동을 용공조직이란 전제하에 공권력을 비난하는 영화는 정말 사회에 위험하다. 선동은 자기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이런 영화같이 암세포가 몸 속 깊숙이 침투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세뇌가 되는 것은 큰 문제다. 감수성을 이용해 국민의 마음을 왜곡시키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우리의 후손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했고 지속가능하지 못 했다. 근대에 들어 자본주의가 가장 많은 인구를 빈곤에서 구제했다. 중국도 경제활동은 자본주의다.

종북세력, 헌법파괴세력 쫓아내야

최근 미국에서 나치주의에 빠진 남자의 여자 친구가 출산한 애를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하고 분리를 시켰다. 공산주의자나 반자본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선진국에서는 공산당을 만들 수도 없고 공산당 소속은 교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등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한 쓰라린 역사가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해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종북사고를 가지거나 공산주의를 옹호

특별기고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종신교수
·환경공학

문화예술계 거의장악
정관계 · 교육 · 법조
언론계까지 뿌리 내려

암세포처럼

모르는새 번져

경제발전통한

국민대통합

모두가 힘 합칠때

한다면 교단은 물론 정관계·교육·법조·언론 등 사회 각층에서 활동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올 통일 시대에 또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시급히 법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양극화·양분화 부추기는 세력

언론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지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흑백논리에 갇혀 선을 넘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논리도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허용되고 있다. 더구나 20·30대부터 북한에 대한 왜곡된 교육으로 헌법정신조차 무너진 상황에 아직도 역사교과서가 좌파 편향적이다. 우파 편향적이라는 역사 교과서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들은 과거 광주병 사태에도 앞장섰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수단으로 적극적일 것이다. 우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질 않다. 결국 갈등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집단은 자본주의의 꽃인 ‘생존경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아름답게 포장된 사회적 활동을 위한 모금이 좌파 시민·환경단체의 생명줄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업이 협찬한 기금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언론사의 기자들은 당대의 최고 인텔리였다. 이후 독재·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운동권 학생들이 대거 언론계로 유입됐다. 이들은 무책임하게 편향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사고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신부 같이 편향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마치 그것이 정의라 착각하는 것이다. 지식인은 많은 경험과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영터리들이 매스컴에서 판치면 국민은 편할 수 없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 속의 피로감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선두 국가들은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도 적은 나라다. 쥐도 일정 면적에서 적절한 개체수일 경우 평화롭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서로 싸우다 멸종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도 뉴욕이나 LA같은 대도시의 주민은 1·2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다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남 때문이고 남이 잘사는 것이 배 아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한국국민 모두 호주나 만주로 이민가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국민 모두 부지런히 능력에 따라 일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옆에 세계에서 가장 고통 받는 동포가 있다. 이들을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정부는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반대세력이 소통부족이라 비난을 받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가시적인 효과는 단시일 내에 얻기 힘들다. 인기 영합 위주로 정치를 한다면 다른 국가보다 빨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종교계는 힘든 곳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며 국민을 화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대기업을 욕하지만 모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청년실업은 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논리에 밀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더 생길 수 있도록, 대기업이 더 활발하게 세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환경법과 노동법도 선진국과 같이 선명하고 친기업적이어야 한다. 이제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대통합’이란 깃대를 향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기성인들은 자식들을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강하게 못 만든 것을 사죄하고 이제서라도 열심히 나서 국가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 갈 것이다. 정신 차리자. 우리는 다시 일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 현재 TV 방영중인 한경CF의 한 장면입니다.



500만 오디언스의 성공스토리

확~ 달라진 한경!

- ✓ 더욱 분명한 논조로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 ✓ 깔끔한 비주얼 편집으로 보는 즐거움을 배가했습니다!
- ✓ 한경-only 콘텐츠로 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 ✓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옥, 독자들의 편안한 쉼터입니다!
- ✓ 한발 빠른 모바일 콘텐츠로 뉴미디어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성공을 부르는 습관



고교생에게 경제 마인드를
전국 고등학교에 경제 논술신문 '생글생글'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문화 게릴라' 한경
사옥 1층 '한경 갤러리'에서는 거장들의 작품전과 음악회가 연중 개최됩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석학, CEO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수준이 다른 모바일 콘텐츠
국내 언론 최초의 아이패드 뉴스 서비스는 신문보다 빠른 업데이트로 비즈니스맨의 아침을 깨웁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정쩡한 논란

7대1의 절대 열세인 우파 고교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20개 고교들이 시위와 전화 협박 등 좌파의 총공세에 시달려 채택을 포기하면서 국사교과서 논쟁이 뜨거웠다.

여당이 대안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자 신문들의 논조는 엇갈렸다. 동아, 중앙, 한국, 한겨레 등은 ‘국정화는 퇴보’, ‘군사정권식 행태’, ‘다시 국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썼지만 조선은 ‘역사교과서, 국정이든 검정이든 모든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며 국정화에 반대하지 않는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 매경, 아시아투데이 등은 ‘전국 2,322개 고교 대다수가 좌편향이 두드러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에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념 논쟁이 확산되고 종북세력까지 등장하게 된 근저에는 이 같은 국사 교육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교과서대로 배운 학생들은 종북 좌파가 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일부 메이저 우파 신문들은 좌파를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비상식’이라느니 ‘편향된 사관’이라느니 하는 미온적인 표현으로 눈치를 살폈다.

질 좋은 교과서 뿌리 내리게 해야

동아는 1월10일 사설에서 “좌파 역사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질러보는 말이라면 모르되 지금 단계에서 국정화를 추진하면 역사 논쟁을 정치싸움으로 변질시키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국정화가 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과서를 바꾸는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꾼 행위 자체가 민중 혁명을 은폐하려는 기도였다는 시각이 있다. 야당의원들은 검정을 통과한 우파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도록 교육부를 압박했다. 검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정치 폭주였다. 지금의 종북 창궐을 볼 때 국정화는 비판만 할 게 아니다. ‘과거 회귀 반대’라는 미봉책으로 엉거주춤할 게 아니라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정권마다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질 좋은 역사교과서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게 근본대책일 수 있다.

중앙은 11일 사설 ‘다시 국정교과서로 돌아갈 수는 없다’에서 “현재가 1992년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면 주입식

교육이 행해지기 쉽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채 부끄러운 현대사만 부각하는 자학 사관과 이를 근거로 쓰인 교과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선을 넘어섰다.

북한 주민을 노예화하는 주체사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서술한 교과서도 비상식의 극을 달리는 사례다.

편수 조직 부활은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다양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한 교과서, 정당 홍보물과 뭐가 다른가’에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제도로 바꾼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세력이 폭력적 방식으로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자기들과 다른 시

각에서 쓴 교과서를 쓸어내 버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검정 제도로 바꾼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교적 중도적 시각의 지학사·리베르스쿨 발행 교과서 채택률은 10.3%에 지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문화는 “천재교육·미래엔·비상교육 교과서는 천안함 폭침을 외면했다. 이런 교과서대로 배운 학생들은 종북 좌파가 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물론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사교육 총체적 실패로 종북 등장

매경도 9일 사설에서 “역사 분야에서는 유독 좌편향 사관에 물든 학자와 교사들이 학교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도대체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걸러내지 못한 검정위원회 위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독립이 보장되는 교과서위원회를 만들어 좌우 모두 인정할 흠결 없는 교과서를 만들어내 봄직하다”는 방안을 내놔다. 아시아투데이는 작년 9월12일 민주당의원들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교육부에 요구한데 대해 쓴 사설 ‘교학사 국사교과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고교 국사 교과서 8종 중 처음으로 발행된 유일한 보수 성향 교과서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남한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폄하하는 좌편향 교과서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이명희 공주대교수는 “현재의 역사교육환경이 유지된다면 한국사회는 10년 이내에 좌파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교육은 좌파학자나 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편향 역사교과서와 교육환경 개혁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역설했다. 국사교과서 좌편향은 종북·좌익세력의 역사 테러라고도 한다. 종북 좀비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종북세력이 자원을 악용하면 국가의 개입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점에서 신문들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사교과서 좌경화와 종북세력 창궐의 상관관계를 직시하고 경종을 울리며 국정화의 의미와 검정교과서 병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두는 공론의 장을 펼쳐야 했다. [4]

‘교육퇴보’대 ‘종북척결’ 엇갈린 논조 진영논리탈피 공론의 장 펼쳐야

발행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고 교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썼다. 비상식으로 판치는 것은 좌파 교과서들이다. 한겨레는 11일 사설 ‘교과서를 직접 통제하려는 군사정권식 행태’에서 “역사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일차적인 검정 책임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준 미달의 역사외국 교과서를 통과시킨 이후 정부·여당이 이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교육부의 행태는 일부 우익세력과 손잡고 역사외국에 앞장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변했다.

“국정화 논란은 외압세력들이 자초”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패망으로 심판이 끝난 북한체제에 호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종북세력이 설치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빼곤 없다. 국정교과서로 국가가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익과 손잡고 왜곡한다는 논리 자체가 왜곡된 시각이다.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짓밟고 저질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과거의 국정으로 돌아가 질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이다, 조선은 10일 사설 ‘정권평가까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교학사 교과서를 교실 안에 한 발짝도 못 붙이게 만든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 대다수 학생은 대한민국 건국 의미를 깎아내리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나 북한 주민의 피폐한 삶에 대해선 눈을 감은 교과서를 통해 현대사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됐다.

역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상(像)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인데 어른들이 자기의 편향된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경쟁하는 마당으로 변해버렸다”며 검정제도의 실패를 비판했다. 교학사 교과서 영패(零敗)도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심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3배수 추천부터 전교조가 절대권을 쥐고 학부모는 들러리라는 주장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과서검정인가?

문화는 10일 사설 ‘고교 90%가 채택한 국사 교과서의 참담한 좌편향 실상’에서 “좌편향을 지적받아온 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금성출판·두산동아 등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가 전체의 89.7%에 이르렀다.

우파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선택한 고교는 전무할 뿐 아니라, 비

SBS 사장에 이응모 씨



SBS 사장에 이응모씨가 선임됐다. 지난 12월 1일자로 취임한 이사장은 1978년 SBS에 입사, 1980년 KBS로 옮겨 기획 제작국 차장을 거쳐 1991년 SBS 제작본부 교양국장이 됐다. SBS 아트렉

언론가 소식

대표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관훈클럽 ‘한국 언론의 품격’ 발행

관훈클럽(총무 이용식)은 지난해 12

월 오태규 전 총무 명의로 특별기획한 ‘한국 언론의 품격’을 책으로 펴냈다.

박재영 이재경 김세은 심석태 남시욱 공동 명의로 나온 이 책은 2000년 위원회 보고서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한국

언론에 관한 본격적인 진단 및 처방서이다. 한국언론의 좌표가 ‘허친스 보고서’를 모델로 삼았다면 한국언론의 품격은 저널리즘 분야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빌 코바치·톰 로렌스텔 공저)을 본보기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남출판사 발행·국판 364쪽·값 17,000원)

대통령 기자회견 ‘각본’ 너무 드러나

소통 부족을 넘어 불통이라고 지적되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지난 1월 6일 가졌다.

취임 후 거의 1년 만에 열린 대통령의 첫 회견인 만큼 국민의 관심은 컸고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지상과 방송은 물론 종편 등 모든 방송매체가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열기- 긴장감 안 느껴져

생중계 모습만 보면 회견장에 노트 북을 한 대 썩 앞에 놓고 대통령의 답변을 열심히 받아 자판을 두드리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모습이나 자리가 비좁아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어 카메라 스탠드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설치한 중계 카메라의 모습 등으로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다.

회견장에 꼭 들어 찬 출입기자와 취재 카메라 기자, 중계 스태프들의 모습만을 보면 그랬다. 대통령이 모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올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을 끝낼 때까지만 해도 이런 열기와 국민의 기대는 이어졌다. 하지만 출입기자와의 본격적인 회견이 시작되면서 열기도 식어갔고 그 만큼 국민의 기대도 녹아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도무지 취임 후 거의 1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취재기자들의 긴장감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얼어붙은 목상처럼 뻣뻣하게 굳은 표정의 국무위원과 비서진의 모습에서 평소 이들이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펴 보아겠다.

출입기자 무기력 드러내

첫째 출입 기자들이 보여준 무기력함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더라도 연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기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났고 중계 화면은 이를 밋밋하게 비춰줬다.

취임 후 1년 만에 열린 첫 대통령 기자회견의 첫 질문자로 선정되는 것은 회견과 달리 질문하는 기자로서도 큰 보람일 수 있고 영광스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손을 든 사람은 달랑 한 사람,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하고 알려준 결과일 수밖에 없다. 출입기자들에게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설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시도도 안하고 자판만 두드렸다.

첫 질문자는 손들라는 소리에 약속된 사람 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취재기사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변인은 당연히 질문자는 손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첫 질문은 출입 기자를 대표해서 아무개 기자가 말도록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도해 회견을 이끌어 나갔어야 했는데 처음

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드러내는 실수를 보여줬고 이를 중계했던 방송은 어설픈 연출과 연기였음을 생생하게 중계했다는 것이 공이라면 공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약속된(?) 기자만이 손드는 행태가 계속됐다.

겨우 회견이 끝나갈 즈음 화면 왼쪽 끝에 앉은

기자(짐작에는 일본매체의 주재 기자로 추측되는 외신기자) 한 사람이 들러리(?)로 손을 들어 대변인이 질문자를 골라 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의와 보다 충실한 취재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제도인 것은 여러 면에서 입증된 관행인 것이다. 물론 출입기자 제도란 관행도 풀제의 하나이고 또 지금도 이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기득권 보장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같은 제한된 내용과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고도의 정밀한 방송연출이

도록 카메라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장 분위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취재기자의 표정이나 정면 샷을 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질문자도 정면에서 잡지 못한 경우가 9명의 질문자 중 4~5명이나 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넷째 취재기자들에 대한 소견이다.

미리 정해진 질문자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자 손 들어달라는 소리에 어김없이 한 사람만 손드는 무성의의 취재기자가 아니라 단순 전달자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동시에 노트북의 자판을 두드리느라고 답변하는 대통령에게 눈길 한번 안주는 행위나 나를 대신한 질문기자인데 쳐다보지도 않으려면 무엇하려고 그 좁은 회견장에 들어갔는가 묻고 싶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기 실력을 뽐낼 것도 아닌데. 차라리 회사 안에서 이어폰 꼽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녹취가 될 것인데 말이다. 더욱이 보충 질문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도 무성의의 극치라고 보겠다.

복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대통령 스스로가 이를 막고 빠진 답변이 있다고 말하면서 답변을 보충한 경우 질문자가 당연히 답변을 촉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제스처는 잘 살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춰진 카메라 앵글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의 디테일한 표정의 변화나 전보다 커진 제스처를 잘 살린 점은 돋보이는 연출이었고 그나마 대통령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의지와 열의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받은 몇 가지 단상을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 외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정리해 봤다. 기자회견의 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은 방송평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 여겨 전혀 언급할 생각도 없고 또 능력 밖의 일이라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방송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뤘다.

중계방송을 전후해서 결들여진 해설과 비판이 종일 계속되고 후속 기사나 세밀한 정책 분석 등에 대해서도 논외로 하고 오직 중계방송 자체에서 받은 단상만을 두서없이 나열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4]

지나치게 많은 취재카메라 투입 ‘풀’제 도입 기자표정등 잡아줘야

둘째 서너 번 들러리로 손을 드는 가혹한 조연이 있었는데도 그를 정면에서 비춰 누구인지 알릴 수 없을 만큼 카메라 조정조차 어렵게하는 많은 수의 취재 카메라 현장 투입문제를 짚아줘야겠다. 사고 현장도 아니고 돌발사가 발생할 현장도 아니고 지극히 안정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모든 방송, 모든 매체가 취재기자나 카메라 취재기자를 들여보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생중계는 방송이 순간순간을 그대로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고도의 연출(조작이 아닌)이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방송 기술이라고 하겠다.

카메라 각도 조정도 어려워

더구나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기자회견 같은 중계는 더더욱 세밀한 카메라 워킹이 필요한데 각도를 조정할 여유도 없을 만큼 수많은 카메라 기자의 투입은 결코 회견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다.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니 아무리 노련한 중계 PD라도 외롭게 손을 들어 조연자(?) 역할을 열심히 한 기자가 있어도 뒷모습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손가락질 받을 제안을 해본다. 회견 직후에 밝혀진 대로 출입기자단에서 질문자 순서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어설픈 연출로 회견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중계방송사 또는 중계카메라는 물론 스틸카메라 기자의 회견장 입장에 과감한 ‘풀 기자’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풀 기자 제도는 결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알

필요한 경우 풀 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번 회견도 중계방송사가 풀 제로 운영했다면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질문해보겠다고 열심히 손을 드는 기자의 뒷모습 대신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잔뜩 주눅이 들어 목상처럼 긴장해 있는 배석자들의 모습을 계속 봐야 하는 고역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풀 중계라고 다양성과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중계(오리지널 화면과 사운드에서 방송사가 임의로 선택해서 방송하는 중계방식으로 보통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중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를 받는 방송사는 얼마든지 화면과 현장 음을 선택해서 중계함으로써 다양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질문자 반응 전달안해

셋째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물론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 편의 주인공은 출입기자다. 출입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국정비전과 정책 시정 방안을 듣고 궁금증을 풀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역이다.

방송은 이들 주역인 취재기자들의 표정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했다. 물론 기계적 제한도 있었을 것이고 답변 내용을 정확히 수록하느라고 자판만을 두드리는 기자 쪽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의 답변에 따른 기자들의 반응 등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현장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취재기자들을 정면에서 커버할 수 있

‘환갑은 무거워 집에 두고 다녀요’… 23살 청

술은 힘이 세다 “윤전기 가격 깎아”

“올해 스물셋, 환갑은 무거워 집에 두고 다녀요”

여든 셋인 溫薺 金官泰 원로회우는 “스물셋 살”이라고 말한다. “소피보고 텀다가도 염라대왕이 부르면 가야할 나이”라 나이를 잊고 산다는 것. 지난 14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만나 사진 찍고 가까운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터뷰 자료는 언론인 인명사전의 간략한 약력이 전부.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낼까 조바심 난다. 자리를 잡자 말 머리를 잡았더니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며 여유를 부린다. 음주가 화두가 됐다.

-주량은 얼마나 되나요?

“마실 때까지 마시죠” 우문현답이다.

-소주는 몇 병 드시는지?

“술병을 세면서 마시나요” 선문답 같다. 술을 좋아하지만 술친구가 하나둘씩 타계해 마실 기회가 줄어든다고 한다. 본회 문화탐방 때는 지연흥 원로회우가 대작 상대라는 것. 술에 얹힌 에피소드를 들으니 술은 힘이 세다. 1968년 서울신문 기획부장 시절, 윤전기 구입 때다. 일본 동경제작소 담당자와 서울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그들의 음주 절차에 맞춰 맥주로 시작하여 정종서위스키까지 통음을 했다. “일본서 술 좀 마신다”고 큰 소리 치기에 “내기에 지면 10만 달러 깎아주겠느냐”고 농담삼아 제의하니 “좋다”고 응수한다. 헤어진 다음 날 출근하여 회사부근 K호텔에 찾아가니 꿈아 떨어져 자고 있었다. “불문율도 약속이니 지키라고 해 10만 달러 깎았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며 각 1병씩 마시고 한 병 더 하자는 걸 사양했다.

-담배는?

“기관지 이상으로 끊었어요. 폐도 3분의 2는 없습시다. 건강 검진 때 의사가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더군요. 해운대서 신분증을 잃고 죽으려고 했었죠. 막상 자살을 하려니 죽지도 않고 불구나 식물인간이 되면 가족들이 더 고생할 것 같아 포기 했어요.” 그 뒤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생겨 담배는 끊었다. 금연 후 몸이 불어 양복 여러 벌을 새로 맞췄다고 한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안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운동이지요”

서울 본토 발음으로 존칭어를 꼬박꼬박 쓴다.

박물관 도슨트로 봉사활동

김 회우는 나이를 잊을 만큼 봉사하며 바쁘게 산다.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유물해설과 안내를 마치고 서둘러 귀경했다. 2002년부터 박물관 도슨트(docent)로 봉사활동을 한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지식을 갖춘 안내인이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다.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1907년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

는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 도입했다.

-도슨트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데, 계기가 있었습니까?

“유럽여행 때 머리 허연 노신사가 느릿느릿 걸으며 박물관 전시물을 해설해주고 미술작품의 배경 설명을 깊이 있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걸 보고 참 멋있구나 감명 받았어요. 아내가 당신도 경로당 같은 데 가지 말고 저런 것 한번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언제부터 시작하

셨습니까?
“88올림픽 때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가 단초가 됐 습니다. 2002월드컵 때도 일본어통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7〉

회우초대석



김관태 원로회우는 “도슨트에 보람을 느끼며,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속기사 자격증으로 신문사 특채 … 외신기자 역할뒤 서울 역사 박물관등 4곳서 맹활약 … 아직도 두주불

역을 한 뒤 그 해 9월 개관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도슨트를 공모하기에 응모했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수원 화성박물관과 서울 역사박물관외에 또 나가시는 곳이 있으신지요?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포함, 네 곳에서 활동합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안내를 맡았었고,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1년 정도 일했으나 좌편향 인사들과 코드가 안 맞아 그만뒀습니다.”

김 회우의 일정은 빡빡하다. 월 화 금 일요일은 수원 화성박물관, 수요일 오전 서울 역사박물관, 토요일 오전은 국립고궁박물관, 수 목 토요일 오후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오가며 관람객들을 만난다.

-봉사 활동비는 전혀 없으신지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은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곳은 당일 8,000원씩 줍니다. 초창기에는 점심 제공에 1만원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했 어요. 경로우대가 생기면서 점심(시정

구내식당 2,800원),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왕복 버스비를 제공했습니다.”

받은 혜택 되돌려 준다는 정신 -어려운 점은?

“가끔 엉뚱한 질문을 받거나 모르는 걸 물으면 당황스럽죠. ‘어린이들이 별은 원형으로 빛나는 데 왜 오각형으로 그리죠?’ 한다던가, 사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올해는 ‘청마피’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슨트는 늘 공부하면서 안내하고, 안내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문화재 관련 지식뿐 아니라 일반상식 등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관련서적을 구입하여 탐독하고 알게 된 지식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다 보면 완벽히 자신의 지식이 되어 뿌듯하다. “장맛은 묵을수록 좋다”며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김관태 회우가 도슨트 활동을 하는 국립고궁박물관 ‘검재정선화첩’과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수원 화성박물관(오른쪽 위)

년으로 뛰는 봉사의 삶

金官泰

· 전 한국일보 사회부기자
· 전 서울신문 사업국장
· 현 박물관 도슨트

인터뷰 : 글 · 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입김이 가장 센 시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반문한다.

“월급이 온라인으로 아내에게 입금되던 때부터가 아닐까요?”

“고려시대 때 여성의 입김이 가장 강했죠. 권력도 뒤에서 좌지우지 했어요. 혼례식도 신부 집에서 치러 ‘장가 간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모계사회죠. 결혼 후에 처가살이를 한 것도 흠이 아니었고, 아버지 성보다 어머니 성을 따르기도 했어요. 장인장모가 죽은 뒤 재산을 상속받아 독립했어요” ‘조

로이드 두 페이지를 발행했다. 편집국은 정치부, 사회부, 종군기자, 체육부 등 4~5개 부서에 불과했고, 인원도 10여 명 정도. 김 원로회우는 일본 단파방송을 통해 해외 소식을 듣고 내용을 속기하여 기사화 했으니 외신기자 역할이다. 철도학교를 다닐 때 속기사 자격증을 따 놓은 게 군대와 사회에서 톡톡히 효과를 봤다고 한다.

김 원로회우는 군에서도 속기사로 복무했다. 6·25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수기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대한언론인회, 도서출판 태봉·2013년) 김관태 편 ‘전투부대 못지않은 역할’에서 밝혔듯이 6·25전쟁 당시 16일간의 단기교육을 받고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배치됐다. 속기사 자격증 덕분이다. 매일 정신없이 진행되는 군법회의 입회서기로 수많은 재판의 기록을 남겼다. 1951년 발체개헌 파동 때 국회의원 재판, 판문점 휴전회담 때 남북자 명단 작성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 속기사는 요즘도 국회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고 영어 속기사들의 활동 폭이 넓고 있다고 한다.

당시 속기사가 드문 탓에 신문사에서 는 기자 월급은 제 때 못 줘도 속기사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줬다는 것. 외신 기사를 다룬 것을 계기로 교통부, 국방부, 시경 등을 출입하며 사회부 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그 뒤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계통신, 자유신문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신문사를 자주 옮긴 이유라도?

“수복 직후 한국 언론계의 흐름이었 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신문사 시경 캡이 “너 우리 회사 안 올래”하면 입사가 결정됐어요. 신문사 여러 곳을 옮겨지만 이력서와 사표를 써 본적이 없으니 얼굴이 이력서였죠. 월급 받으며 도장도 찍어 본적이 없어요. 급사가 월급봉투를 가져다주면 그만이었습시다.” 그는 “다녔던 신문사 가운데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은 것이 공통점”이라며 씩씩하게 웃는다.

-서울신문은 사업부 쪽인데요?

“신문사를 떠나 잠시 쉬고 있을 때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신문 기획부장을 맡았어요. 첫 임무가 윤전기 도입이었 지요. 외자도입서 통관과 조립까지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윤전기 한 대 들여와 한 달 간 조립하면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는데 서울신문사는 두 대를 들여와 한 달 만에 거뜬히 조립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그 공로로 창간기념식 때 표창장과 함께 상금 1만원을 받았다. “누굴 거지로 아느냐”고 화를 벌칙 냈다. 장태화 사장이 그 소리를 들었다. 굶은 일 하던 직원에게 상금을 준 뒤 그만 둔다며 동네병원에 입원했다. 그 때 일본 동경 기계에서 초청장이 왔다. 渡日 준비를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②4

견과류를 상복하라

하루에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상시 먹는 사람은 견과류의 종류와 관련 없이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추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NEJM이 최근 보스턴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 위장암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almond) 16~24개, 캐슈(cashews) 16~18개, 땅콩 30~35개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 중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대부분 애초부터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허리둘레가 작고 정상체중을 유지하였다. 또

한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낮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였으며 운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견과류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할 때 이러한 변수들을 교정하였다. 펙스 교수는 견과류는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소 및 좋은 지방(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B가 풍부하여 항암효과도 있는 건강식품이라며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사탕이나 과자를 덜 먹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견과류가 약이라는 뜻은 아니며 단지 건강식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학술지 미국임상영양학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는 2013년 4월 견과류는 추가로 섭취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스페인 마테오(Gemma Flores-Mateo) 교수의 연구를 다루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견과류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준다고 설명했다. [4]

센터 책임자인 펙스(Charles Fuchs) 교수 팀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다뤄 관심을 끈다. 펙스 교수는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실시하는 ‘간호사 건강연구’(Nurses' Health Study)에 참여한 76,000명과 ‘건강전문직 추적연구’(Health Professionals Follow Up Study)에 참여한 42,000명 등 총 118,000명을 대상으로 30년간 견과류 섭취와 건강에 대해 추적 관찰하였다. 이들 중 심장병과 뇌졸중 그리고 암이 있는 사람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찰기간동안 여성 16,000명과 남성 11,000명이 사망하였는데 견과류를 평균 일주일에 1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사망위험이 11%, 2~4회 먹는 사람은 13%, 매일 한번에 1온스(28.35g)정도를 먹는 사람은 무려 2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 사람은 심장병, 암,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위험도 아주 낮게 나왔다. 1온스의 견과류는 아몬드

하는데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 사업국장 자리를 줄 테니 가지 말라고 해서 팔자에 없는 사업국장을 맡았다고 한다.

호텔 영업상무에 사업까지

-언론계는 언제 떠났습니까?

“1972년입니다. 서울신문 유한열 정치부 차장이 인천 올림포스호텔 사장으로 가게 됐으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영업담당 상무로 갔습니다.” 입사 3개월 만에 일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 오면서 객실이 꽂혔다. 운도 좋았지만 기자 시절 창립을 도와줬던 여행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이다. 적자에 허덕이던 호텔이 흑자로 돌아섰다. 8년여 근무하다 1981년 그만 뒀다. ‘김관태가 호텔 신화를 창조했다. 그가 들어와 흥했고, 그가 나가면서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호텔을 그만 둔 뒤는?

“산전수전에 공중전을 겪었죠. 어묵 공장을 운영했으나 7개월 만에 1억 원을 까먹고, 회사도 차려보고 번듯한 식당도 운영해 봤어요. 영동에서는 다섯 손가락 꼽히는 시설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이 즐비할 정도로 성업했으나 사업이 망하면서 돈 버는 것

은 팔자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다”고 회고한다.

1991년부터 5년 동안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 있는 榮成市人民政府 경제고문과 다롄(大連)에 있는 복장회사(100% 일본 수출·제1, 제2 공장에 종업원 1,000여명) 상담역을 맡기도 했다.

저서로 ‘4월 혁명·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1960년 김관태 박인호 위상욱 조덕송 공저) 등이 있다. 환갑 나이를 뺀 ‘스물셋 열혈 청년 김관태’는 “활동할 공간이 있고, 도슨트에 보람을 느끼며,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봉사하는 삶은 아름답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들 뿐이었으니까요...” 김회우의 마지막 멘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었다.

1961년 중매로 만난 부인 손永吉(75) 여사 사이에 자영업을 하는 장남 榮俊(50)씨와 인테리어를 전공한 장녀 鉉庭(49)씨가 있다. [4]

사회부 기자로 봉사의 주량자랑



전(왼쪽) (서부터)

선시대 여인사’를 거쳐 ‘현대의 여성상 위 현상’까지 사례를 풀어놓는다.

-보람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도슨트가 적성에 맞기도 하고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살면서 받은 혜택을 되돌려 준다는 정신으로 힘닿는 데까지 봉사할 생각입니다”

“얼굴이 이력서”

-언론계는 언제 입문했는지요?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2년 국방부 연락장교실에서 복무했어요. 사무실은 경남도청에 있었고, 출입기자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제대가 가까워 질 무렵 국회를 출입하던 평화신문 김진형 기자가 “제대하면 뭘 할 거냐”고 묻기에 “서울에 가봐야 안다”고 대답했지요. 대뜸 “신문기자 안 해 볼래”하더군요. 그래서 제대와 동시에 평화신문 속기사로 특채 됐어요”

9·28서울수복 후에도 AP통신 등 외신과 국내신문이 부산에 머물 때 평화신문이 가장 먼저 서울에 올라와 타블

溫故知新

淸海鎮 옛터의 張保臯將軍祭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2월 14일은 음력 정월대보름이다. 전남 완도를 장좌리에선 이날만 되면 마을 당제로 장보고장군제(張保臯將軍祭)를 베푼다. 장좌리가 그 옛날 장보고의 무적함대 기지인 청해진(淸海鎭) 옛터이기 때문이다.

장보고는 신라 후기에 무적함대를 만들어 바다를 개척하고 동북아의 제해권을 장악한 위대한 바다의 영웅이었다. 그는 일찍이 중국으로 건너가 용명을 떨쳤으며, 신라에 돌아와서는 청해진을 세우고 왜와 당의 해적들을 소탕하여 안전한 뱃길을 열어 놓았다. 장보고는 중국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해운을 개척한 데에 이어 멀리 동남아까지 교역권을 넓히고 바다를 호령하니 그 장한 기개는 해상 무역왕국의 군주(君主)와 다름없었다.

왕조 중심의 이른바 정사(正史)에서는 중앙정계 진출이나 피하다 몰락한 시골 장수쯤으로 무시당한 장보고였지만, 그가 바다를 호령하던 곳, 그 옛날 청해진의 향토사 속에서는 그의 위대한 기상이 살아남아 오늘도 추앙받고 있다.

일본 교토 북쪽 히에이산(比叡山)의 적산선원에서 장보고를 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으로 받들고 있으며, 16세기 전국시대의 명장 다케다 신겐은 장보고를 가문의 수호신인 신라대명신(新羅大明神)으로 받들었다. 또 장보고가 산동반도 등주에 세웠던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이 산동성 영성에 복원되어 그의 위업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보고는 신라 제38대 원성왕(元聖王·785 ~ 798) 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청해진을 설치한 해가 제42대 흥덕왕(興德王) 3년(828), 그로부터 13년째가 되는 제46대 임금 문성왕(文聖王) 3년(841)에 암살당했으므로 30대에 귀국해 40대에 죽었든, 40대에 귀국해 50대에 죽었든 출생시기가 그 무렵으로 역산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대체로 원성왕 때부터 거의 해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흉작이 겹친 데다 사방에 도둑떼가 들끓고, 왕실은 진골(眞骨) 귀족끼리의 왕위 싸움이 끊일새 없어 온 나라가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가난한 섬마을, 걸핏하면 왜와 당의 해적들이 떼 지어 몰려와 노략질을 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바닷가에서 자라며 소년 장보고는 무엇을 꿈꾸었을까.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점점이 떠 있는 섬들, 훨훨 날아 섬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갈매기들을 바라보며 소년은 무슨 생각에 빠져들었을까.

장보고에게는 정연(鄭年·鄭連)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잠수한 채 50리를 헤엄쳐가도 끄떡없을 만큼 물에 익숙했고 무술에도 뛰어났지만, 나이는 장보고가 몇 살 위였으므로 장보고를 형이라 부르며 함께 붙어 다녔다. 고국을 떠나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와 정연이 처음 머문 곳은 지금의 강소성 금산현인 서주 땅이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취직(?)을 한 곳이 무령군(武寧軍)이란 서주절도사의 아군(牙軍·本軍). 처음엔 외국 출신이니 말단 졸병으로 입대했을 것이

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남보다 뛰어난 힘과 기예로 미루어볼 때 금세 부대 안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것이다. 무령군 소장까지 지낸 장보고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828년 이전의 일이었다.

완도가 생겨난 이래 최초의 대역사(大役事)를 일으킨 장보고는

장정들로 하여금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에서 아름답리 통나무를 베어 날라서 방주선(方舟船)이란 전함을 건조했다. 장보고는 장도의 청해진성을 자신의 거성(居城)으로 삼고, 170m 떨어진 맞은편 본섬의 장좌리에는 본영을 설치해 주력부대를 배치한 뒤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삼국사기’는 흥덕왕이 군사 1만을 주어 청해를 진수토록 했다고 썼지만 이는 믿을 수 없다. 당시 신라는 3년간에 걸친 김헌창(金憲昌)·범문(梵文) 부자의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한 끝에 1만은커녕 100명의 군사라도 변방 수비군으로 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1만이란 군사는 장보고가 재물을 풀어 모집한 군사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막강한 장보고의 무적함대가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헤쳐 나가면 감히 상대할 적이 없었다. 해적선이 보이기만 하면 그대로 쫓아가 박살을 내고 모조리 수장(水葬)시키니 그로부터 해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바다의 청소작업이 끝나 해상항로를 장악한 장보고는 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에 착수했다. 바로 해상무역의 독점이었다. 물론 청해진이 본점격이었고 당나라 산동반도 등주 적산포가 지점격이었는데, 중국에 파견하는 무역선단은 견당매물사(遣唐買物使)가 인솔하는 교관선(交關船)이요, 일본에 파견하는 무역선단은 회역사(廻易使)가 인솔하는 교관선단이었다.

836년 12월 흥덕왕이 재위 11년 만에 죽었는데 그때 왕자 김의종(金義琮)은 당나라에 가 있었다. 후계자가 없이 왕이 죽자 그 틈을 노린 왕족 사이에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흥덕왕의 종제 균정(均貞)과 다른 종제 헌정(憲貞)의 아들 제룡(悌隆) 숙질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져 양파는 각자 족병(族兵·私兵)을 이끌고 궁중에서 한바탕 피바람을 몰아치며 무력충돌을 일으켰고, 그 결과 균정은 칼에 맞아 죽고 태종무열왕 김춘추(金春秋)의 후손 김양(金陽)은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균정의 아들 우징(祐徵)은 가까스로 도망쳐 버렸다. 그리하여 제룡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43대 임금 희강왕(僖康王)이다. 희강왕은 즉위한 이듬해(837) 정월 죽을 죄 외에는 모든 죄수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준 흥덕왕의

조카 시종 김명(金明)을 상대등에, 이홍(利弘)을 아찬에서 시중으로 승진시켰다.

우징은 그 해 5월 가족을 이끌고 서라벌을 탈출, 청해진으로 들어갔다. 장보고는 9년 전 흥덕왕 때 시중으로 있으면서 편들어 준 우징인지라 두말 않고 선선히 그를 받아들여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희강왕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 이듬해인 838년 정월, 야심만만한 김명이 이홍과 합세하여 군사를 일으켜 왕의 측근들을 마구 학살하니 실권 없는 허수아비 임금은 왕위를 보전할 수 없어서 궁중에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김명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곧 제44대 임금 민애왕(閔哀王)이다. 김양은 김해에 숨어 화살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가 김명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모아 청해진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장보고와 우징 등을 만나 거사를 권유했다. 장보고가 정연에게 군사 5천 명을 주고 출전시켰다. 838년 12월, 청해진을 떠나 육지에 오른 장보고의 군대는 연전연승하여 금성으로 쳐들어가 민가에 숨어 있던 국왕을 찾아내 목을 쳐 죽여 버렸다.

이에 김우징이 즉위하니 신무왕(神武王)이다. 신무왕은 장보고의 은덕과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청해진 대사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 호를 내렸는데, 천신만고 끝에 임금이 된 신무왕도 그해 7월 23일 등장이 나 죽고, 태자 경응(慶應)이 왕위에 오르니 문성왕이다. 문성왕도 아버지 신무왕과 함께 청해진에서 난을 피하며 장보고의 신세를 진 바라 그에게 진해장군(鎭海將軍)을 제수하고 많은 선물을 보냈다. 감의군사니 진해장군이니 하는 직함 역시 대사와 마찬가지로 신라 관직에서는 전무후무한 명예직이었고, 장보고가 중앙 정계 진출을 시도해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일단 왕위를 굳히고 정권을 안정시킨 조정의 입장에서 볼 때 청해진과 장보고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으로 혹시 판마음이라도 먹는다면? 정권은 원래 의심이 많은 게 속성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양측 사이에 걸려 있었으니 그것은 신무왕이 청해진에서 군사를 얻을 때 장보고에게 “이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장군의 딸을 맞아 며느리를 삼으리다”고 한 약속이었다.

비록 약속을 한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매듭을 짓고자 문성왕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만고에 없다고 모두 반대했다. 진골(眞骨)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녀도 6두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출신성분을 중시하는 신라에서 근본도 모르는 섬 촌놈의 딸이 왕비라니 말도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왕은 이미 박씨 부인이 왕비로 있어서 차비(次妃)로라도 맞아들이려던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이 장보고의 귀에 흘러들어갔다. 급할 때는 쫓아와서 통사정을 하고, 원하지도 않은 약속까지 먼저 해놓고는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니까 이제 와서 판소리를 해? 그만뒀라 그만뒀! 썩어빠진 놈들! 장보고가 내뱉은 소리가 발 없는 말이 되어 금성으로 달려갔다. 왕과 대신들은 전전긍긍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장보고가 화갑에 군사들을 몰아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어육이 될 판이었다. 장보고를 누가 무슨 힘으로 막는단 말인가...

이때 나선 자가 염장(閼長). 그는 본래 무주(光州) 사람으로 김양이 무주도독으로 있을 때부터 거느리던 심복이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암살이란 비열한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염장을 파견했다. 청해진으로 달려간 염장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장보고의 비위를 맞추었다. 장보고는 대범한 인물인지라 별 의심 없이 염장을 맞아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윽고 밤이 깊었다. 장보고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염장은 칼을 뽑아 장보고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841년 11월이었다.

장보고가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모반을 일으켰다면 진작 군사를 일으켜 풍우처럼 휩쓸어 버렸지 우유부단하게 해를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뜻은 드넓은 바다에 있었지 속 좁은 소인배의 추악한 음모가 난무하는 육지에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었다.

청해진의 활발하던 교역활동은 이내 마비상태에 빠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문성왕 13년(851) 2월 청해진 혁파로 찬란하던 해상왕국은 영화의 막을 내리고 그 주민들은 내륙 깊숙한 벽골제(碧骨堤), 지금의 전북 김제로 강제 집단이주를 당하고 말았다.

일세의 풍운아 장보고의 암살은 장보고 개인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해양진출, 해상제패의 위대한 꿈을 꾸어보기는커녕 비좁은 국토 안에서 집안싸움을 하거나 몽골족·여진족·왜구들에게 침범과 노략질을 연거푸 당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통렬한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4]

살며 생각하며

김天하신 丈母님前 上書

위중하시다는 처제의 전화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빈 장모님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두 딸이 울고 기도하고 귀에 대고 나지막한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아멘’ 소리와 거의 동시에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환자 머리맡 계기판의 바늘이 모두 멈췄습니다.

바빠 달려온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파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은 나가주세요.”

순간 멍해졌고 어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장모님의 임종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 3시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해도 재령이 고향이신 장모님은 그 곳에서 명신 여학교를 다니셨고 육사(특)8기로 육군 장교인 장인과 결혼해서 두 딸을 낳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 맏딸이 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 그대로 영육의 세월을 지내셨지요.

고희를 한참 넘긴 나이에 빙모 상을 모시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노인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이들은 죽음이 아주 끔찍한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맞을 수 없는 참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 아닌가요.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모들도 돌아가셨고 이웃해 살던 아저씨, 아주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내가 죽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지요.

아프리카 한 흑인 부족의 임종 얘 기입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 늙어 가족에 도움이 안 되고 부족에 짐이 되는 노인은 어느 날 저녁 으름에 지팡이 짚고 산으로 들어간다. 그 것으로 그 삶은 끝이고 가족들도 그러려니 한다.〉

그러면서 기도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주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을 맞는 고통만은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장모님께서도 생명에 대한 애착에서는 자유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겠다는 기도를 늘 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과 가족에 대한 집념은 대단하셨습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지셔서 윤신이 어려운 지경이 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소변 처리까지 불편해 지면서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지요. 사

위는 제쳐두고 팔도 생활이 있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정말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딸의 수발을 받으면서 죽고 싶은 자연스럽고 간절한 그 분의 소망 때문입니다. 강한 집념이기도 했습니다. 두번이나 디스크 수술을 받은 큰 딸은 아예 감당 할 수가 없었고 따로 사는 작은 딸은 직장 일에 집안 챙기기만으로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딸과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말이다. 할머니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일을 맡아 하겠니?”

둘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대답 못하는 너희들의 솔직함이 예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첨언했습니다. “내가 그리 되거든 주저하지 말고 요양원으로 보내라. 요양원의 급과 격이 다르니 그때 형편과 사정에 맞게 말이다. 노인 환자 수발과 관리도 가족이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할 일이니깐 말이다. 또 그들이 더 잘할 것이고, 그것이 세태이다.”

다시 장모님 얘기입니다. 집에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모셨지요. 억지가 반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를 버렸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들었습니다. 남의 말 하기는 참 쉽지요.

처음 요양병원에 가신 장모님의 반응입니다.

“야 여기 괜찮다. 매끼 식사도 잘 챙겨주고 먹을 만하고 움직일 때마다 도와주니 집보다 편하고 좋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아주 친하게 지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문병을 오셨답니다. 그 분이 열싸안고 울면서 “형님 이게 웬 일이에요. 자식이 없나. 집이 없나. 왜 여기 이러구 계시요. 빨리 집으로 가야하지요.”

그 다음날엔가 찾아간 딸에게 “야, 나는 여기서 정말 싫다. 집에서 살다 죽을 테니 집에 데려다 주라. 너 일 있으면 일보고 밥은 안 챙겨 줘도 좋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테니”라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날 밤 딸은 밤새 울었지요.

“내가 이리 불효자식이라니...”

그리고 사위는 베개를 들고 판방으로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모셔 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영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망이었지요. 자식과 함께 하겠다는 집념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의 생활 여건이 빚은 갈등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얼마간의 고통스런 인내 끝에 작은 딸이 일하는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간호사로 은퇴했다가 재취업한 작은 딸의 애처로운 호소가

통했습니다.

“엄마, 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잘 모실 게... 엄마”

그리고 작은 딸이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4개월을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이 4개월이 본인에게는 자랑스럽고 좋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옆 자리 환자에게 저 간호사가 내 딸이라고 자랑하면서...

딸은 마지막으로 최고의 그리고 값진 효를 했지요. 그러나 막상 간호사인 그 딸은 어머니를 모시는 또 다른 고충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다른 환자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신경도 더 쓰이고...

몇 해가 지난 일입니다. 장모님 연세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 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아내와 함께 여기 저기 모실만한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보고나서 하는 아내의 말은 “엄마를 이런 곳에 계시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관창은 시설에 담당 요원들도 관창아 보였는데도 정서적으로 삭막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방의 요양원을 둘러 볼 때였습니다. 철순 할머니의 큰 목소리가 귀를 덮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OO 대학 교수네 그 X이 날 이곳에 버렸다”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주와 원한이 서려 있었지요. 그 눈은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시설에서 저 할머니와 같은 저주를 이해로 바꿔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깨우침과 인성을 가르치는 일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수인 그 며느리는 오죽했을까요. 나만 생각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요양시설이 영리보다는 인간학과 철학이 자리 잡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 돼야 합니다. 치유 받고 깨달음을 얻는 곳이

돼야 합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나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 단체에서는 젊은이 보다 천당이나 저승에 갈 시기가 가까운 노인 들을 깨우치고 돌보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끌어 모아 팡황에만 매달리는 종교지도자들의 각성이 아쉽습니다.

어쨌건 그 요양원을 둘러본 이후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기꺼이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겠습니다. 치매만 아니라면 나는 요양원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다지고 글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과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최인호 소설가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시(詩)였다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더 늙어서 생각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어려우면 생각을 다잡아 시를 쓰겠다고 말입니다. 소설이나 수필 보다 생각은 많이 하고 글은 짧게 써도 되는 시가 알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바라기는 건강하게 살다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죽음을 맞는 일이다.

마지막은 다시 장모님 이야기로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고 딸네 식구와 월남한 친정 식구들만 모이는 빈소가 초라하리라 우려했는데 외손자와 손녀들이 모두 잘 성장했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빈소는 초라하지 않았습니

다. 조화도 꽤 많았고 조문객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를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친정 오빠들과 함께 하실 공원묘원에 자리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장모님께서 교회 권사로 여신도 회장으로 헌신하셨고 신·구약 성경을 12번이나 필사해서 딸네와 손자, 손녀네 집에 남겨준 믿음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것 같다는 칭송이 계속되었습니다.

하관 예배를 마치고 장례버스에 오르는 데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아들(소천하신 장모님의 맏외손자)이 말했습니다.

“저 오늘자로 부장 승진했다고 SNS로 통보 받았어요.”

40여년을 한집에서 모셨는데 마지막에 장모님의 마음을 덜 이해하고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천국에 가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서 뵈겠습니다. ☞

회우들이 펴낸 신간

박석홍 회우 ‘한국근현대사의...’

박석홍(건양대 대우교수)편집위원이 국사 교과서 과동으로 불거진 국사학계의 식민·종북·자학사관을 검증한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연구’를 펴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박근혜정부까지를 조명한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연구’는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한국 미국 러시아의 새 공개 사료를 분석한 사회과학계의 연구도 반영하여, 한국현대사 해석의 지평을 넓힌 혁신적인 것이다. 역사학계의 좌우 진영 논리에 얽매인 한국사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건국, 6·25, 4·19, 한강의 기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국가 부도를 낸 YS이후 MB정부까지의 2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과 민주주의 위기도 고찰했다.

박교수는 브루스 커밍스, 알렌(본명 존 엠 테일러), 나카무라의 한국사 왜곡·일본과 북한의 대한민국 비방 선전 선동·386세대와 전교조의 좌편향 사관의 오류와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 반론도 제시했다. 이승만·박정희·3김 정치에 대한 국내외 정치학·국제정치학·경제학계의 새로운 해석도 온축해 민주화 과정에서 등장한 운동권 세력의 좌편향 한국현대사 인식의 오류를 실증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한국사 공교육의 문제를 YS정부의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정통성 시비와 진보사학이 학문의 보편성을 망각하고 좌편향 정치 이데올로기의 선전 선동에 동원된 특수성 때문이라는 비판도 심층 분석했다.

이책은 일제식민사관 극복에 나선 해방후 1세대 국사학자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사회과학계의 좌편향 현대사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제1장에서 소상하게 해석했다. 종북자학사관의 건국, 6·25,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국사학계가 간과한 주목할 역사적 사건도 밝히고 있다. 미국이 6·25 전쟁 조기 휴전을 위해 8군사령관, 주한미국대사, 한국군참모총장까지 가담했던 이승만체제 쿠데타 모의와 4·19당시 마산사태까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했던 내각의 배신 등도 당시 정부 기록 문서와 증언 등을 근거로 새롭게 조명했다. <국학자료원 한국사연구총서·465쪽> 



김 현 회우 ‘70대 인생을 재미있고...’

‘부부 배낭여행가 1호 요셉과 피나 부부’로 유명한 김 현(전 KBS방송연구실장)회우가 ‘70대 인생을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이야기’ 책을 펴냈다. 저자인 김현(요셉), 조동현(피나) 부부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청장년 못지않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무언가 열심히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으로 가득한 노년이기에 더욱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다가온다.

70세 중반의 나이에도 문화산책 ‘청류회’와 여행클럽 ‘2Hyuns’ Travel Club‘을 이끌고 있는 김현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이 행복한 노년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름다운 황혼을 기대하는 예비 노년층뿐만 아니라 그 어느 연령대의 독자라도 이 책을 통해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2Hyuns’ Travel Club‘은 ‘대한민국 부부 배낭여행가 제1호’라는 별칭에 걸맞게 필자 부부가 1999년부터 공동 대표가 되어 이끌어 오고 있다. 12년간 출연했던 KBS TV의 ‘세상은 넓다’를 비롯하여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발족된 여행클럽이다. 지난 15년간 ‘2Hyuns’ Travel Club‘을 통하여 평균 15명씩 연 2~3회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김 현·조동현 부부는 일흔을 넘긴 현 재까지도 이 두 가지 일에 역점을 두고 살아간다. 또한 70대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면 얼마든지 노후를 신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장기 기증을 서약하여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되돌려주려는 노부부의 일과 사랑, 여행과 신앙이야기를 읽다 보면 새삼 행복이 곁에 다가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도서출판 행복 에너지·국판 265쪽·값 1,350원> 

최금녀 회우 시집 ‘바람에게...’

최금녀 회우(전 대한일보 부녀부 차장·시인)가 일곱 번째 시집 ‘바람에게 밥사주고 싶다’ (책 만드느라 집 刊)를 펴냈다.

2012년 가을 여행시집 ‘길위에 시간을 묻다’ 출간 이후의 시작(詩作)과 채수록 몇편을 더해서 한권으로 묶어 낸 것이다. 1부 ‘도라산역’ 14편, 2부 ‘새와 시’ 10편, 3부 ‘여행, 그후’ 17편, 4부 ‘어머니’ 14편, 5부 ‘자화상’ 7편 등 총 62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한양대)는 해설에서 최시인의 이번 시집은 “삶의 근원에 대한 섬세하고도 심미적인 탐색과 함께 ‘언어’ 자체에 대한 충실한 자의식을 보여주는 상상적 기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며 “최금녀 시인이 견지하고 있는 언어적 자의식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유교수는 해설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최금녀 근작(近作)들은 소소한 일상과 심원한 기억들을 그리움으로 결속하면서 결국 일필휘지(一筆揮之)로 /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 (「골프 십계」) 찾아낸 삶의 구체성과 밀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시 세계를 두고, 근원을 사유하는

깊은 언어적 자의식의 세계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집의 이러한 개성적이고 성취를 훌쩍 뛰어넘어, 그녀가 더욱 구체적인 일상과 역사 속에서, 대상들을 향한 더 강렬하고도 선명한 시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그녀의 시편들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서정의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깊이 소망해 보는 것이다.”

최시인은 ‘현대 시인상’ ‘미네르바 작품상’ ‘시인들이 뽑은 시인상’을 받았으며 작년엔 ‘펜 문학상’을 수상했다. 

건강상식

겨울철 장염조심

요즘 겨울철 장염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다. 보건소나 일반병원에 가보면 장염환자가 부쩍늘었다. 환자 대부분은 노년층과 유아들이다. 얼마 전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을 앓기도 했다.

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위장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위장염의 절반가량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데 복통과 구토, 설사를 동반한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탈수증상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갈수 있으며 식중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도 특별히 조심해야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가 대표적이다. 위생관념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예전처럼 상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적어짐에 따라 근래에는 세균성 위장관염보다는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은 최근 모든 위장관염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주로 식수나 수영장의 물을 통해 감염이 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전염성이 강해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인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은 영유아에게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가 겨울철 설사 질환을 일으키는데, 오랫동안 국내에서

는 그 원인을 몰라서 가성 콜레라로 불린 바 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토할 것 같은 증상, 구토, 설사, 탈수로 인한 기운빠짐, 열 (37.5 도 이상) 등이 있다. 일시적으로 장약을 먹고 나면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이 사라진 듯해서 느슨해질 수 있지만 2~4일 정도까지는 특히 분비물 처리 (기저귀, 대소변 본 후 손씻기)와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장염으로 인한 복통은 일반 복통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배가 뒤틀리는 듯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치료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는 것이 확진되면 우선 치료와 함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중독, 장염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손발 씻기, 유아가 걸렸다면 기저귀를 처리하고 나서 부모(양육자)의 손씻기가 철저히 돼야 한다.

증상이 오래가면 특히 탈수증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 5회 이상의 구토나 설사를 하는 사람은 전해질 용액이나 파우더를 경구투여하기도 한다.

전염될 수도 있나?

최근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전염성 세균성 질환은 감소하는 반면 바이러스성 장염이 증가하고 있다.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최종명 회우 별세

최종명회우가 지난해 연말 별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6세.

고인은 1938년 6월 17일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 경희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1962년 강원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그 후 편집부장 대우, 지방부장, 사회



부장, 편집부장, 정경부장 겸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출판국장(이사), 상무이사, 원주지사장 겸 논설위원, 논설위원 겸 서울 지사장, 전 무이사, 부사장 겸 영동 총 지사장을 역임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감사, 대한언론인회 이사로도 활약했다. [출처]

김석성 회우 별세

김석성 회우가 1월 28일 오전 7시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35년 6월 전북 부안에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한 후 중앙일보 사회부장, 월간중앙 주간, 여성중앙 주간, 시카고통신원, 뉴욕지사장,



출판제작국장, 세계일보 이사대우 출판국장을 역임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에디터 출판사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 전북 부안 여자중고 재단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한언론인회는 1월 29일 오후 3시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출처]

사우회 소식

2014 신년 하례회

국민일보

국민일보 전직 사우회 모임인 KMC(회장 함정훈) ‘2014 신년하례식’ (사진)이 지난 1월 14일 오후 6시 퇴계로 금산 갤러리에서 열렸다. 현직 후배들을 격려하는 KMC언론상도 시상했다. 한편 KMC는 지난 12월 26일 세 번 째 회보를 발행했다.

김태선회장 취임 4기 집행부 구성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본회 회우)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우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를 연임하고 퇴임하는 김광희 회장(본회 회우) 후임에 김태선 동우를 신임회장으로 추인했다. 동우회 4기 집행부 임원중 본회회우는 다음과 같다. 회장 김태선, 감사 이병대, 부회장 조강환 정구중, 이사 박문두 문준호 박기정 성낙오 신광연 안평선 이문조 최명우

2014년 정기총회 친목 화합다저

한국경제

한국경제사우회(회장 엄영섭)는 지난 1월 24일 오후 5시 한국경제신문 빌딩 11층 대연회실에서 100여명의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 겸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이날 엄회장은 “청마의 해를 맞아 회원들의 건승을 빌며 어느 사우회 모임보다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많은 회우들이 모일 수 있는 단합대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갖겠다”고 약속했다.

제2대 회장 김수웅 사우 선임



SBS

SBS 사우회는 최근 2014년 새해 새 회장으로 김수웅 사우를 선임하고 사우회 제2기 시대를 열었다. 김수웅 신임 회장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SBS 경영관리본부장, 편성본부장, 전무이사, 대표이사 부사장, SBS미디어넷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매실즙

매실즙이 으뜸이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균 작용으로 설사를 완화하기 때문에 물 대신 매실즙을 먹는 것이 좋다.

-모과차

모과차는 환절기에 많이 찾게 되는데, 장염 증상의 완화에도 좋다. 모과에 있는 유기산, 사과산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복통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민들레

민들레는 소화를 돕는 약재이기도 하고, 장의 열을 내리고, 몸속 독성을 제거 한다. 장염에 민들레 달인 물을 복용하게 되면 진정된다고 한다. (도움말: 용산구보건소 진료과) [출처]

이보길 편집위원 기

김영진 회우 별세

김영진(金英鎭) 회우가 지난해 12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고인은 1945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 문리과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1970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고인은 연합통신에서 근무하던 80



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에 따라 해직됐다. 그 뒤 전 자시보 외신부장을 거쳐 1988년 국민일보 창간준비위원으로 입사하여 워싱턴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 아들 형도(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과장)·민규(현대EP 과장)씨가 있다. [출처]

이제 本郷에서 편히 쉬시구려

김영진 회우 영전에



김승웅(전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그가 남긴 유산으로 역서(譯書) 한 권이 있습니다. ‘후안흑심(厚顔黑心)’이라는 제목이 달린 경제서로, 저의 워싱턴시절 미국거주 중국계 여류 마켓컨설턴트 친닝 추가 쓴 “Thick Face, Black Heart”가 그 책의 원전입니다.

저자가 책의 영양가와와는 별도로 글의 반전에 펴 놓은 필책이라는 것, 따라서 서울서 번역출간 될 경우 ‘꽤나 팔리겠구나!’ 정도로 기억하던 책입니다.

제가 새삼 놀랜 건, 그 책의 번역판이 이미 서울에서 출간됐는데도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지내다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 책의 역자가 저와 워싱턴시절을 함께 보낸 국민일보 김영진 특파원이었다는 걸, 그것도 고인의 사후한 달을 넘겨 이렇게 추모사를 쓰면서야 겨우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런 농장파악이 제겐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역서 출간이야말로 고인의 위인 됨을 여실히 들춰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자, 추모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던 제게 오히려 글의 모티브(種子)가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책을 내면 그 책의 소개에 허를 빼물기 마련이건만 고인은 이런 자기 자랑에 도통 서툴렀고, 서툴다기보다는 ‘소개’라는 말 자체가 아예 입력이 안 된, 한마디로 중세(中世)의 수도승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시절을 함께 했으면서도 그가 특파원하면 으레 최고의 가치를 두던 특종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봤다면 매사 반 박자 늦게 반응하고, 그때마다 고인의 입 언저리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던 허탈한 웃음 정도가 고작이었습나다. 나쁘게 말해 기자직을 아예 잘 못 택한 분이거나, 좋게 말해 천의무봉의 자유인(Le libre)으로 평생을 과객처럼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저의 이런 평가가 흔들린 건, 그가 어느 날 고교재학 중이던 장남 형도군을 패어팩스 소재 학교 앞에 떨어트린 후 귀가하다 미국 경찰에 걸려 ‘속도위반 50마일, 1백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섭니다. 그가 이 처분에 과감히 불복, 시민법정에 선 것입니다.

경찰의 고발내용에 “동의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부분 동의(Partly agree)한다”고 답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는 판사의 재차 질문에 고인은 “경찰관의 보고서가 거의 맞지만 속도부분은 틀린다. 나는 20마일 정도 오버했던 걸로 확신한다.”고 역시 당당히 맞선 것입니다. 경찰이 50마일 과속의 입증에 우물쭈물하자 판결은 결국 고인의 주장대로 ‘20마일 초과, 20달러’ 과태료로 낙착되었습니다.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휘몰고 간 이유에 관해 고인이 훗날 털어 놓던 귀띔 또한 압권입니다. “그토록 과속했던 건 분명 아닌데, 경찰 녀석이 나를 영어도 못하는 동양 놈으로 깔보는 게 싫었던 거야!”

고인의 이 귀띔을 그의 동향후배 겸 동료특파원이었던 정서한 씨(부산일보 편집국장 역임)로부터 전해 듣는 순간, 제 관심은 예의 책 ‘Thick Face, Black Heart’한테로 다시 달려가더이다. 그 책의 권말(卷末)에 고인과 마찬가지로 매사 반 박자 늦게 살았던 링컨 대통령의 언급이 다음과 같이 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아버지를 초청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대한 그의 기여는 그가 스물한 살까지 ‘말처럼 일만 해 준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링컨 부자는 서로가 서로의 부채를 청산한 만큼,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대로 산 것입니다. 우리 감각에 비취 언뜻 불효막심했던 인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링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 참된 자유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처럼 가장 그답게 실증했던 사례로 제게는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인이 그 책의 번역에 나선 것 역시 법정에서 벌과금 시비를 가렸듯 참된 자유인이 뭔지를 몸소 입증하려던 실험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자, 김영진 형. 지금쯤 그곳 본향에 안착했겠구려. 조사하면 으레 과찬(過讚)이 따름이지만, 김 형 같은 과객에게는 그게 오히려 욕이 될 성 싶고, 저 또한 그런 주술형 조사에는 영 서툰지라 형에 대한 제 슬픔을 이렇게 ‘과객론’을 빌려 그 속에 숨겨 썼소이다. 통촉하소서. 잘 쉬시구려. 나 역시 형처럼 과객으로 살리다. 영원한 과객으로! [출처]

14면에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로바이러스로서 오염된 지하수나 해조류를 먹은 후 집단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 설사의 중요한 원인인 로타바이러스도 전염성이 있다.

장염에 좋은 음식과 차

노로바이러스 장염치료를 위해서는 쌀죽을 먹고 기름진 음식, 유제품, 과일 등은 먹지 않는다. 음식만 조심하고 약을 잘 챙겨먹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통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매실, 모과, 민들레가 좋다.

대한언론인회 28차 정기총회 참석자명단 〈가나다순, 괄호안은 전직〉

강두모(국민일보 편집위원)
강성구(MBC 사장)
강승훈(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신구(문화일보 편집국장)
강용식 (국회의원)
강진형 (한국경제 편집위원)
강한필(경향신문 편집국장)
계성일(현대경제 사회부장)
계창호 (한국일보 기획관리실장)
고덕환(세화산업 전무)
고두현(서울신문국장급기자)
고명진(한국일보 사진부장,부국장)
고수균 (동아일보 사회부차장)
고수웅 (KBS 파리특파원)
고재혁(한국경제 심의위원)
고학용(조선일보 이사대우논설위원)
공대식(MBC 해설위원)
곽찬호(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건서(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
구월환(세계일보 주필)
구종서(중앙일보 논설위원)
국기일(대한일보 기자)
권기진(서울신문 출판부국장)
권대웅(한국일보 편집부차장)
권도호(문화일보 편집국기획위원)
권도홍(동아일보 편집부장)
권영국(대한일보 문화부장)
권영국(CBS 해설위원장)
권영빈(중앙일보 사장)
권혁만(한국경제 정경부차장)
금창태(중앙일보 사장)
길윤석(서울경제 편집국장대리)
김경래(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중(서울신문 사회부기자)
김경철(코리아헤럴드 사장)
김경태(서울경제 편집부국장)
김관태(한국일보 사회부기자.)
김광희 (동아일보 이사제작국장)
김귀제(경향신문 정치부장)
김규문(경향신문 부국장)
김기원(산업경제 주월특파원)
김남술(중앙일보 사회부기자)
김담구(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대환(대한일보 기자)
김두호(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김명수(신아일보 회장)
김무중(KBS 태백방송국장)
김문진(서울신문 전무)
김병모(코리아헤럴드 사진부장)
김병무(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김상수(KBS 대전방송총국장)
김선기(KBS 해설위원)
김성립(경향신문 조사심의실장)
김성묘(뉴스인뉴스 편집국장)
김성배(KBS 보도제작국장)
김성수(한국일보 사진부 차장)
김성환(동아일보 사회만평 고바우영감)
김세경(연합통신 편집부국장)
김수남(동아일보 편집부 기자)
김수웅(KBS라디오 편성국장)
김승호(경향신문 문화부장)
김시복(한국일보 사회부차장)
김양섭(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김영범(대한일보 기자)
김영일(연합통신 사장)
김영택(동아일보 기획위원)
김영환(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김영호(KBS 보도실기자)
김용발(조선일보기자)

김용수(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김용술(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우상(KBS 보도편집위원)
김원재(시사통신사 정치부장)
김유동(문화일보 편집위원)
김윤곤(조선일보 편집위원)
김윤덕(평화신문 기자)
김윤재(세계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은구(대한언론인회 상담역)
김의수(내외경제 증권부장)
김인규(KBS 사장)
김재관(동아일보 과학부장)
김재근(조선일보 교열부차장)
김정기(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김정삼(서울경제 중소기업부장)
김정일(동화통신 도쿄특파원)
김종범(경향신문 이사)
김종열(국민일보 체육부장)
김종일(스포츠서울 편집국장)
김종하(국회부의장)
김종현(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
김주철(KBS 국제방송국장)
김준하(강원일보 사장)
김지용(문화일보 편집부국장)
김진결(한국일보 체육부장)
김진기(KBS 워싱턴총국장)
김진배(국회의원)
김 집(KBS 전문위원)
김충수(조선일보 교열부장)
김충한(한국일보 회장)
김태선(동아일보 이사)
김한구(동양통신 편집부국장)
김한길(서울신문 경북취재부장)
김한봉(대한일보 기자)
김한영(한국경제 기자)
김해도(한국일보 논설위원)
김 현(KBS 방송연구실장)
김형태(KBS 뉴욕특파원)
김호곤(연합통신 차장)
김호기(한국경제 사회부장)
김 화(경향신문 편집위원)
김후란(현 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김휴선(MBC 뉴스데스크 부국장)
나용경(한국일보 교열부장)
나형수(KBS 해설위원장)
남선현(KBS 워싱턴특파원)
남시욱(문화일보 사장)
남재희(노동부장관)
노상국(동아일보 심의위원)
노영순(강릉MBC 보도국장)
노영태(KBS 월남특파원)
노진호(중앙일보 주간국 국장대우)
노철용(경향신문 사장)
도준호(조선일보 논설위원)
동문성(조선일보 기자)
류철희(충남 부도지사)
마권수(KBS 해설위원)
맹태균(경향신문 편집위원)
문 청(KBS 기획조정실장)
문명호(문화일보 논설주간)
문준철(내외경제 편집국장)
문준호(동아일보 과학부장)
민병문(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민정기(대통령공보비서관)
박 실(국회의원)
박강지(경향신문 외신부차장)
박경석(국회의원)
박광춘(KBS 사회부장)
박권흠(국회의원)

박기병(6·25참전언론인회장)
박기정(동아일보 편집국장)
박동선(KBS 진주방송국장)
박동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명근(강릉MBC 부국장)
박문두(동아일보 사진부장)
박미정(KBS 부산방송본부장)
박범진(국회의원)
박석흥(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박세호(SBS 스포츠본부장)
박순신(한국경제 교열팀장)
박연호(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영길(일간스포츠 편집국장)
박영식(시사통신 사회부장)
박용근(KBS 정경부장)
박용배(한국일보 상무)
박용윤(동아일보 출판국장 대우)
박우정(문화방송 보도제작국장)
박응칠(KBS 해설위원)
박재권(내외경제 편집국장)
박정하(동아일보 해설위원)
박종서(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
박준구(동아일보 편집부국장)
박진서(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진열(한국일보 사장)
박현태(KBS 사장)
박화진(서울신문 논설실장)
배병후(경제풍월 발행인)
배학철(KBS 보도본부장)
백인호(YTN 사장)
백일진(스포츠조선 편집부장)
백환기(동아일보 편집위원)
서병주(KBS 라디오본부장)
서병호(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서옥식(연합뉴스 편집국장)
서정혁(KBS 국장급 영상취재부장)
서진섭(동아일보 기자)
성낙오(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성만복(제일경제 편집국장)
소재필(코리아타임스 편집부차장)
손기상(중앙일보 논설위원)
손세일(국회의원)
손일근(한국일보 고문)
손주환(국회의원)
송경섭(KBS 해설위원)
송 복 (연세대학교 정치사회학 교수)
송선무(SBS 심의위원)
송용식(국회의원)
송정제(부산일보 사장)
송충섭(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송평성(YTN 사외이사)
송호창(동아일보 사진부장)
송효빈(한국일보 논설위원)
신경식(국회의원)
신광식(KBS 해설위원)
신광연(경인일보 논설위원)
신대근(MBC 보도제작국장)
신동식(한국여성언론인연합대표)
신동철(중앙일보 논설위원)
신동호(KBS제작단 사장)
신성순(중앙일보 편집국장)
신우식(서울신문 사장)
신정호(KBS 사회부장)
신현구(한국일보 편집부장)
심상대(KBS 보도국 보도위원)
심의표(KBS비즈니스 감사)
심재복(조선일보 기자)
안건혁(경향신문 논설위원)
안광식(이화여대 명예교수)

안상현(CBS 편성국장)
안종우(연합통신 편집부국장)
안평선(KBS 춘천방송방송총국장)
안현태(KBS 순천방송국장)
안홍렬(한국경제 관리국장)
양성목(경향신문 편집국장)
양휘부(한국케이블TV협회장)
어경택(동아일보 이사)
엄병윤(주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여구만(경향신문 편집위원)
여영무(동아일보 논설위원)
오건환(KBS스포츠국장)
오근영(연합통신 편집국장)
오인문(한국일보 주간여성부장)
오전식(경향신문 정치부장)
오관용(영남일보 전무)
우경식(코텍스 회장)
원종선(문화일보 편집부국장)
원충희(한국경제 논설위원)
위상욱(조선일보 제2사회부장)
유무정(MBC 해설위원)
유성렬(합동통신 경제부장)
유승택(신아일보 이사)
유인근(한국경제 상무)
유자호(SBS 보도제작국장)
유재철(경향신문 논설위원)
유지호(LA한국문화원장)
유진수(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유한준(스포츠조선 취재부차장)
윤기로(KBS 해설위원)
윤병찬(아리랑TV 고문)
윤상철(경향신문 주필)
윤석웅(매일경제 증권부장)
윤양중(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용호(한국경제 편집국부국장)
윤익한(코리아헤럴드 전무)
윤임술(한국언론연구원장)
윤재홍KBS 해설위원)
윤주영(문화공보부장관)
윤희섭(MBC 보도제작국제작위원)
이경문(문화체육부 차관)
이경식(공보처 차관)
이경식(코리아헤럴드 문화부장)
이경재(현 방송통신위원장)
이광영(한국일보 생활과학부장)
이구열(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
이규섭(국민일보 논설위원)
이근양(중앙일보 사우회장)
이기한(내외경제 사업국장)
이남규(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대영(국민일보 편집국장 대우)
이덕주(한국방송사업단사장)
이도형(현 한국노동단발행일)
이동훈(헤럴드경제 편집위원)
이두석(문화일보 논설실장)
이두환(동아일보 출판영업국장)
이명동(동아일보 출판부국장)
이문조(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이민희(KBS 동경특파원)
이배영(세계일보 편집국장)
이병대(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병삼(세계일보 출판국부국장)
이병천(한국경제 이사)
이보길(KBS 해설위원)
이상근(서울FM방송 뉴스실장)
이상호(문화일보 편집위원)
이석희(KBS 보도국장)
이선희(경인매일 논설위원)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성호(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이세환(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순기(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이억순(세계일보 주필)
이영일(문화일보 부사장)

이용화(동아일보 교열부차장)
이우진(한국경제 사진부장)
이육용(문화일보 편집위원)
이원창(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이윤래한국경제 편집위원)
이은명(MBC 보도이사)
이인원(한국대학신문 회장)
이재권(스포츠동아 전무)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재원(정무장관실 1차관)
이정식(CBS 사장)
이정원(일간스포츠 야구부장)
이정윤(동아일보 출판국장)
이종기(서울신문 편집위원)
이종문(KTV 전문위원)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종세(동아일보 사업국장)
이종식(국회의원)
이종연(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종윤(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이종전(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종준(소년조선 취재부장)
이준기(서울경제 편집국장대리)
이준우(조선일보 이사)
이창열(TBC 사회부장)
이창호(매일경제 편집부국장)
이채주(동아일보 주필)
이 철(대한상공일보 경제부장)
이철영(KBS 부다페스트특파원)
이청수(KBS 해설위원장)
이태교(한성대 대학원장)
이태영(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태자(경향신문 기자)
이학주(한국경제 편집부장)
이해범(중앙일보 출판사진부장)
이향숙(한국일보 문화부차장)
이 형(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형균(경향신문 편집국장)
이흥기(KBS 파리총국장)
이흥우(동아일보 시사만화 ‘나대로’)
이화복(동아일보 편집위원)
이 휘(YTN 사외이사)
인보길(조선일보 사우회장)
임덕규(국회의원)
임상학(경향신문 심의위원)
임응식(KBS 해설위원장)
임인흡(세계통신 편집국장)
임종건(서울경제 부회장)
임판호(국제방송교류재단 감사)
임학수(동아일보 기획위원)
임한순(연합통신 외신국장)
임현태(경향신문 편집위원)
장기호(신아일보 사회부장)
장덕상(서울신문 상임감사)
장두원(아시아투데이 주필)
장석훈(조선일보 편집국차장)
장 옥(경향미디어 상무)
장준식(한국경제 사회부장)
전민조(동아일보 출판국사진부장)
전신병(동화통신 정치부장)
전용호(동아일보 부국장)
전의식(서울신문 뉴스피플부장)
정건일(SBS 스포츠국장)
정광현(조광프린트 사장)
정구종(동아일보 편집국장)
정기정(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정두진(CBS 보도국장 전무)
정범태(한국창작사진가회 초대회장)
정서구(KBS 해설위원)
정성진(CBS 정치부장)
정용석(KBS 해설위원)
정운종(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정운택(서울신문 편집부장)
정웅교(문화일보 편집위원)

정일화(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정재필(한국일보 사진부차장)
정재호(국회의원)
정종표(KBS 창원총국장)
정준창(조선일보 편집위원)
정진규(국제신문 경제부차장)
정진철(MBC 보도국장)
정창기(KBS 기획보도실장)
정형수(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정홍택(한국일보 출판국장)
정회준(KBS 해설위원)
제재형(대한언론인회 고문)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조관희(서울신문 출판편집국장)
조규만(서울보증보험 청계지점대표)
조규석(세계일보 논설실장)
조규진(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
조덕동(한국경제 체육부장)
조덕연(서울신문부국장겸 사진부장)
조덕일(문화일보 편집위원)
조봉균(KBS 감사)
조성국(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
조성하(한국일보 교정부차장)
조영서(서울신문 제작심의실장)
조용중(연합통신 사장)
조창화(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조천용(시사저널 부국장)
주종환(조선일보 교열부차장)
지갑중(국회의원)
지연홍(자유신문 기자)
지용우(경향신문 논설위원장)
천상기(내외경제 편집국장대리)
천승준(동아일보 편집위원)
최광일(서울신문 제작이사)
최귀조(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최명우(동아일보 편집위원)
최병요(한국경제 편집위원)
최상목(동아일보 편집위원)
최상완(경향신문 북한부장)
최선록(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최신호(서울신문 주월특파원)
최연석(신아일보 문화부미술담당)
최영정(조선일보 체육부장)
최원각(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재규(동아일보 출판부장)
최재욱(환경부장관)
최종수(코리아헤럴드 사진부장)
최종수(전남일보 사장)
최종철(SBS 전무)
최택만(서울신문 논설위원)
최희조(문화일보 편집국장, 상무)
탁성만(서울경제 정경부차장)
한강수(KBS 목포방송국장)
한규남(중앙일보 편집국장)
한기호(대한언론인회 상담역)
한동희(매일경제 편집국장대리)
한상규(문화일보 문화사업국장)
한양인(서울신문 교열부장)
한영도(미CBS 서울지국장)
한영섭(KBS 보도실장)
한영탁(세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인터넷 사장)
함정훈(현 국민일보 사우회장)
허동진(경향신문 기자)
호천웅(KBS LA 지국장)
홍성혁(동아일보 편집부국장)
홍승국(KBS 편집부장)
홍용수(한국경제 논설위원)
홍원기(대한언론인회 회장)
홍진태(신아일보 논설위원)
황대연(일본경제신문 서울특파원)
황선영(한국경제 편집부국장)
황우권(서울신문부국장)
황원갑(서울경제 문화부장)

회우동정가나다순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연임



문 청(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전 KBS기획조정실장)회우= 최근 열린 2014년도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익광고협의회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문청위원장은 KBS기자, 정책주간, 위성방송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벤텍(주)회장이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은 학계, 언론계, 광고계 등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균관대 초빙교수 재임명



윤재홍(전 KBS 해설위원)회우= (주)가나문화콘텐츠그룹 부회장으로 2014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임명됐다. 작년에 이어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언론미디어학과 외래교수로 방송보도론등을 강의, (사무실 연락처 02-332-7755 010-5327-0099)

회우가족동정

신경식회우 장남 신응진교수 EBS TV '명의' 출연

신경식(전 대한일보 정치부장·4선 국회의원) 최금녀(전 대한일보 부녀부장·시인) 부부회우의 장남 신응진 교수(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진료부장겸 외과과장·의학박사)가 지난 1월10일 저녁 9시50분 EBS TV '명의·3.0'에 출연, 치질과 항문질환 치료모습이 방영됐다.



신응진 교수.

신교수는 항문질환과 완치가 어려운 크론병에 의한 대장 항문 질환을 전문 치료 하고 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

박정진 회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01동 1701호(우 472-792)

▶ 회우경조사 ◀

유지호 회우= 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아들 결혼
호천웅 편집위원= 1월 10일 부천 대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빙모상

입회비·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3년 12월 27일 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강두모(14)	문준철(14)	이성춘(9~13)
고명진(8~14)	민병문(14)	이옥용(14)
고수웅(14)	박경석(12.13)	이재원(14)
공대식(14)	박승구(14)	이정원(14)
구만완(14)	박승채(14)	이준우(14)
구종서(12~14)	박실(14)	이창열(14)
권대웅(12.13)	박연호(14)	이청수(10~12)
권영국(9~14)	박응철(14)	이학주(14)
금창태(10~13)	배학철(04~12)	이흥기(14)
길윤석(14)	백인호(14)	임종건(14)
김경중(14)	소재필(14)	임현태(14)
김귀제(13.14)	손기상(14)	장석영(입회비)
김규문(14)	송복(10.11)	장옥(14)
김도연(미상,21만원)	송충섭(14)	전남석(14)
김담구(14)	신경식(12~14)	정구종(12.13)
김대환(12.13.14)	신동식(14)	정대수(12.13)
김무중(14)	신동호(12~14)	정덕교(14)
김병모(14)	신정호(14)	정두진(14)
김상수(14)	신현구(14)	정서구(13.14)
김성묘(14)	심상기(7~14)	정웅교(13.14)
김성순(9~13)	심상대(14)	정재호(13.14)
김영호(14)	심의표(14)	정회준(13.14)
김원재(14)	안건혁(14)	조광현(11~14)
김윤곤(10~13)	안상현(14)	조봉균(14)
김의수(14)	여구만(14)	조재린(14)
김재관(12.13)	오근영(14)	주종환(14)
김정삼(14)	유재철(9~13)	최경호(8~14)
김진배(14)	윤상철(12~14)	최금녀(12.13)
김한영(14)	윤재홍(14)	최재규(13.14)
김형태(10~13)	이경식(14)	한동희(14)
김후란(13.14)	이규섭(14)	한영도(14)
노진호(14)	이남규(14)	현소환(9~11)
노철용(14)	이병삼(14)	홍창덕(14)
도준호(14)	이병천(14)	황선용(14)
맹태균(14)	이병훈(12~14)	



본회 사무실에서 열린 18대 마지막 편집회의.



18대 임원진 새해 교례회

대한언론인회 임원진이 송구영신의 자리를 갖고 대한언론인회의 활기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12월 31일 오전11시 30분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새해를 맞는 소회를 피력하며 정담을 나눴다. 한편 1월 2일 같은 시간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임원진 신년 교례회(사진)를 갖고 “새해에도 대한언론인회가 새 회장을 중심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데 합의하

고 근처 한 음식점에서 떡국을 들며 덕담을 나눴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바로 잡습니다 ◀

28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30쪽 원로회우 명단 중 황대연 위원장이 누락되었기로 바로잡습니다.

대한언론인회 18대 마지막 편집회의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성낙오)는 지난 1월 8일 대한언론 발행인 흥원기 회장 임기 마지막 편집회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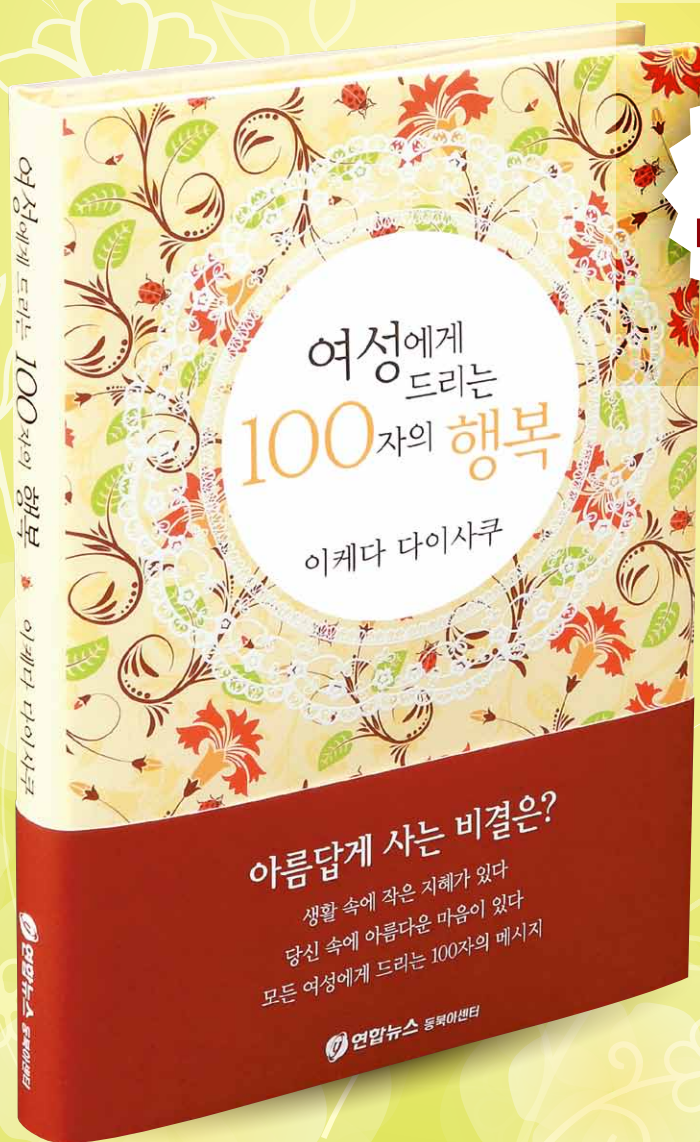
열었다. 흥원기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봉사해온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마지막 편집회의의 참석자들이 오찬 뒤 기념촬영을 했다.

여성에게 드리는 100자의 행복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건져 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지혜
모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아름다움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연애와 사랑을 꿈꾼다면,
울곧게 살아가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184쪽

추천사

“자신에게 당당하면서 자녀에게는 멘토로
서, 남편에게는 꿈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고 싶은 워킹맘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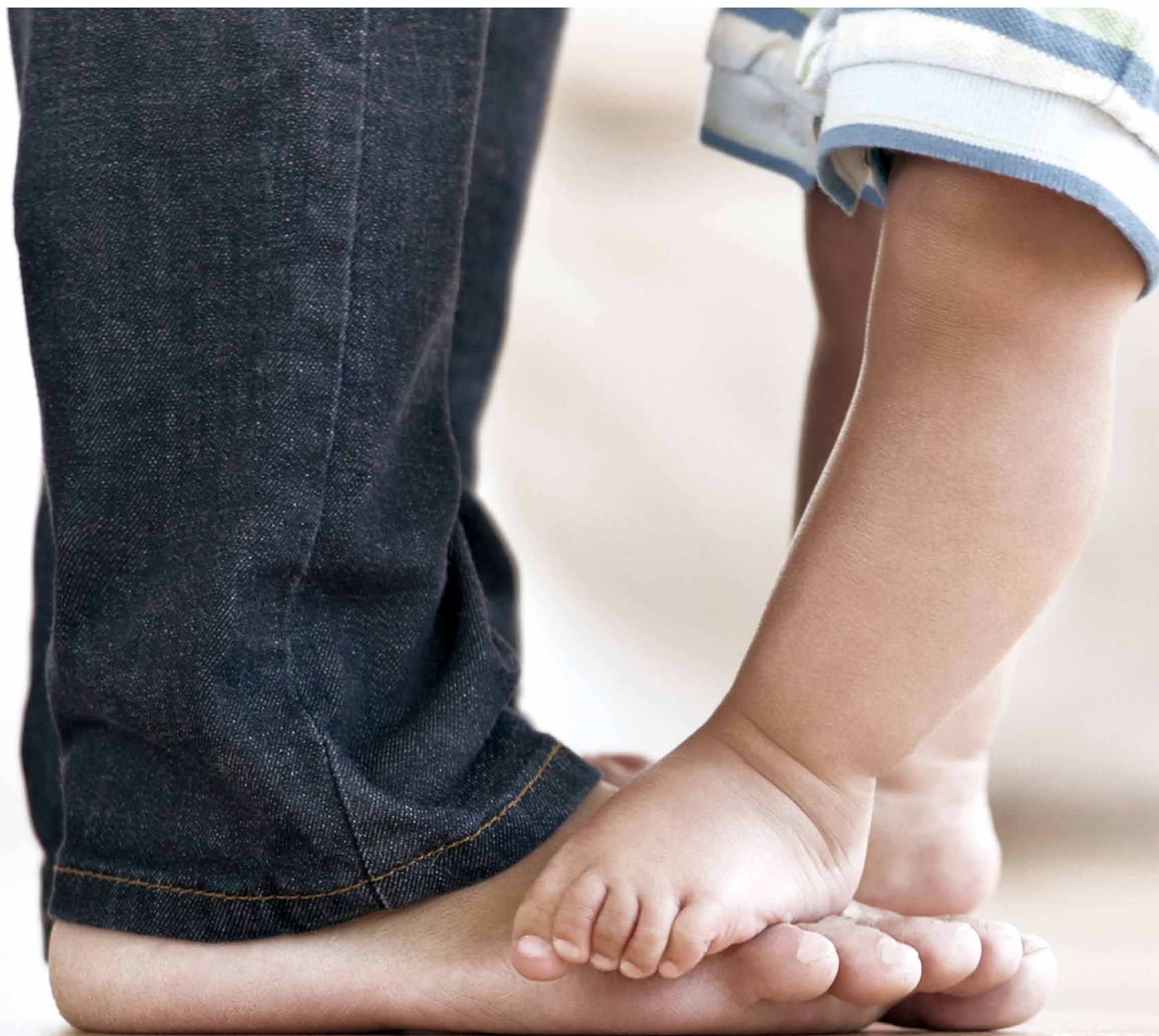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시시포스’
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생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다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이 책에서 느끼기 바란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빼기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는 잡다한 지식
도, 어려운 용어도 없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
한 것만 깔끔하게 들려준다.”

‘뽀로로 아빠’ 김일호 오콘 대표



잘 일어설 수 있게 잘 이겨낼 수 있게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코바코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